

THE MAGAZINE OF
SOKCHO ARTS & CULTURE



속초시 승격 60주년

2023 속초예술



통권 제23호

사단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
www.artsokcho.com

©김건수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으로 발간

모래밭을 거닐다

정명숙

달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아 있는
바닷가에 모여 발을 이룬 모래알

어느 산 어느 골에서 시작되었을까
부서지고 흐르며 뿔어진
수많은 인연

아침 햇살 천천히 내려앉는 모래 위를 거닐며
생각한다

다른 듯 닮았고 달은 듯 다른
스쳐 간 인연과 스쳐 갈 인연

그 많은 인연의 어미는 누구인가?

2023년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전쟁,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삶이 점점 어려운 올 한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속초예총 회원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올해 처음 속초예총 회장으로 취임하고 빠르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12월 달력을 보니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왔던 길을 회상해봅니다. 3월 취임을 시작으로 속초종합예술제 등 여러 사업을 마무리하고, 송년예술제를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사고 없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속초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진행한 제58회 설악문화제 기념 프린지 공연은 지역의 30여 팀의 전문·생활 예술인에게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산하 협회와 회원들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속초예총 가족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속초예총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영화인협회 속초지부가 속초예총의 아홉 번째 협회로 들어 왔습니다. 9개 단체가 모두 상생하고 지역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회장이 목표로 한 변화하는 속초예총의 모습이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속초예총, 변화하는 속초예총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올 갑진년(甲辰年)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박 치 영**

CONTENTS

권두시

000 모래밭을 거닐다 : 정명숙

커버스토리

006 문화예술인과 함께 준비하는 속초시의 미래 100년 : 속초시장 이병선

008 가장 고유한 것만이 소멸을 막는다 :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

010 지역민과 지역 시각 작품의 만남 : 편집부

예술산책

014 만남, 내 詩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 권정남(시인)

026 일상의 어휘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 주는 스토리텔러 : 김종헌(시인)

회원특집

033 속초사자놀이 이해에 대한 소고
: 김정익(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속초사자놀이보존회 대외협력국장)

037 갈전의 보물창고 (A treasure house of Galjeon Village)
: 사진가 고명녀(사진 작가협회 부지부장)

040 설악문화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든다.'
: 박재근(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장)

미술이야기

042 숲의 본질 : 권정아

043 권금성 단풍 : 김광희

044 반아바라밀다심경 : 김만두

045 내면의 안 : 루다 김(영미)

046 자작나무 숲 : 박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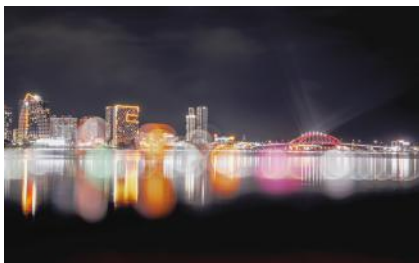
047 우주를 품다 : 이설윤

048 길 위에서 길을 찾다 : 정다정

049 빈의자 : 정봉재

050 생명의 소리 : 채경문

051 훈민정음해례본 : 한도웅



표지사진 : 청초호 야경



표지작가 : 김건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 시공간을 프레임에

- 052 물레방아 : 강영미
- 053 외옹치해변에서 바라본 속초해변 : 강영진
- 054 선유줄불놀이 : 김광수
- 055 음의 흐름 : 김주향
- 056 박새 : 선종용
- 057 아침 : 이광수
- 058 영랑호 춘경 : 이왕선
- 059 아름다운 울산바위 : 정규
- 060 300년수령의홍매화 : 최수홍
- 061 영랑호의봄 : 홍춘희

◆ 속초에 흐르는 문학의 숨결

- 062 빠라 : 강영화
- 063 영랑호의 전설 : 탁명원
- 064 영금정 : 장은선
- 065 태양과 맞서는 남자 : 조외순
- 066 들풀 : 노금희
- 067 청춘 : 이진여
- 068 퇴행성 관절염 : 정영애
- 069 속초 바다 : 채재순
- 070 메밀꽃 피다 : 홍성희
- 071 나팔꽃 : 이영수

◆ 제34회 속초시민백일장 우수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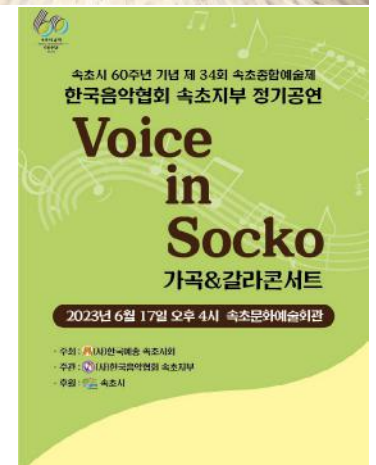
- 072 입상작품 : 12편

설악청소년미술작품 공모

- 086 유치부·초등부 금상 작품 : 4점 / 중고등부 금상작품 : 2점

예총 이모저모

- 088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23)는 : 사무국



한국예총 속초지회

속초시 번영로 155 (속초문화회관 내)
T 033-631-8070 F 033-632-8072
E art8070@hanmail.net

발행인 박 치 영
편집인 이 정 무
발행일 2023.12.02.



문화예술인과 함께 준비하는 속초시의 미래 100년



속초시장 이병선

2023년은 속초가 읍에서 시로 승격한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 시승격 이후 지난 60년 동안 속초 시민들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성장, 그리고 최근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산업의 성장까지 속초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지역의 성장 동력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에는 시립풍물단을 중심으로 한 국악, 여러 극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극은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속초시의 자랑스러운 영감

자원인 설악산, 석호(청초호, 영랑호), 동해바다 등을 바탕으로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문화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는 시민들의 삶, 의식주 등의 생활방식, 스포츠, 교육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며, 그 문화의 중심에 예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속초시의 예술 활동이 우리나라의 예술이 되고 세계 속의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문 예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예술 활동도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2017년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한 상도문문화

마을(돌담마을)은 속초의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많은 여행자가 찾는 곳이 되었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한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활동도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러한 시민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2022년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어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중단이라는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딛고, 이번 정부에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지정된다면 향후 속초시 문화예술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속초시는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속초역세권 개발사업) 선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 탄소중립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크루즈의 모항이자 기항지로서 대형 크루즈선을 다시 맞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미래 100년을 위한 속초시의 상징물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새로운 속초시의 CI와

캐릭터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며, 속초시 전용 서체인 속초바다체 3종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장 속초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문화산업이 함께 할 것이며, 속초시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 발전해 갈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이 하나 되고, 하나 된 시민을 통해 속초시가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여러분도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올 한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신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발전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문화예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고유한 것만이 소멸을 막는다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실은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어떤 상황에 호오와 긍정 부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은 상황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말로 이해된다. 가령 고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의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을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사장하는 능동적 행동이 된다. 우리의 삶은 그런 해석이 미리 덧붙여진 의미들의 유통속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격동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느정도일지 모르는 경제적 몰락을 점치는 많은 뉴스와 전망이 몰려오고, 서울과 경기권을 벗어난 중·소 지역들은 오세아니아 대륙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의 영토가 물에 잠겨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소멸되어 가고 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점철된 말 앞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일상은 위축되고 우리는 새로운 개념과 의미, 언어를 꽃피우기 어려워

진다. 우리만의 말과 의미가 피어나지 않으면 지역은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고유성이 없이는 향기가 없어 사람을 모을 인력을 상실하게 된다.

속초시는 언론에 언급되는 지역소멸에 취약한 지자체들과는 다르게 훌륭한 인프라와 인구유입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불안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발아하는 것을 어려워서 우리도 거대한 보편 문화와 자본에 편입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시간의 향기’에서 존재 붕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을 상기할 수 있게 해주는 ‘향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부의 문화로 쉽게 대체될 수 없고 지역 고유의 개념들에 매력과 향기를 불어넣는 일을 속초예총이 하고 있다.

속초시는 실향민축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단의 아픔이 시민



들의 마음 깊이 담겨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예술은 상처자체가 품은 무한한 의미를 예술로 풀어내어 지역이 품은 채도를 올려 풍요를 피운다. 극단 청봉이 올해 6월 선보인 '에스뿌아-가슴 깊이 함께 부르는 희망가'가 그 비근하고 좋은 예시이다.

납북 귀환 어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일이지만, 그 애환과 감정을 사람들 사이로 흐르게 하고 스며들게 하는 것은 지역예술의 힘이다. 극단 청봉이 납북 어부 일가의 애환을 실감 있게 재구성함으로써, 납북 어부란 말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 사건에서 깊이 통감하고 슬픔과 희망을 공명케 하는 의미를 피워낸다.

채도를 부여받고 흐르는 사건은 몇몇 서책에만 남아 간신히 지적 생명력을 유지받는 일을 넘어서 삶 자체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다. 두 연극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뛰어난 지역 예술은 이처럼 지역에 향기를 불어넣고 지역은 이를 영토삼아 더욱 발돋움 한다.

속초시의 대표적 축제인 설악문화제 또한 지역민의 고유성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축제이다. 축제는 다양한 무대와 공연이 있지만 언제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한껏 고민해서 만들어 내는 결실인

거리행진이다.

어느덧 여러 문화를 스스로의 뿌리로 둔 시민이 늘어난 속초시의 구성은 설악문화제의 거리 퍼레이드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지만 그 구체적 방향은 각 자에게 맡기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과 더불어 지역예술의 앞날이 걱정될 때, 늘 답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지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변용하자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엄혹한 시대는 가장 창의적인 것만이 대응할 수 있다.



지역민과 지역시각작품의 만남

지역작가 작품(미술, 사진) 전시사업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다양한 시각예술 동아리들은 매년 다양한 전시회를 연다. 하지만 홍보의 어려움, 전시 공간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2년 초 속초시는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작가 작품 임차 전시를 제안, 복지시설 및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함께할 수 있고, 작지만 소정의 임차비를 받는다는 함께 상생하는 계획이었다.

미술 15점, 사진 15점 등 총 30점의 시각 작품을 4월부터 12월까지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 기관을 모집. 해밀요양원, 속초시립도서관 등 8개 단체가 함께하기로 했다.



전시내용

회차	전시장소	전시기간	전시작품
1차	해밀요양원	4월 ~ 5월	사진 10점
		5월 ~ 6월	미술 10점
	속초시립도서관	4월 ~ 5월	미술 10점, 사진 5점
		5월 ~ 6월	미술 5점, 사진 10점
2차	속초교육도서관	7월	사진 10점
		8월	미술 10점
		9월	사진 10점
	설악파인리조트	7월	미술 8점, 사진 5점
		8월	미술 5점, 사진 8점
		9월	미술 8점, 사진 5점
	한화리조트	7월	미술 7점
		8월	사진 7점
		9월	미술 7점
3차	속초교육문화관	10월	사진 10점
		11월	미술 5점, 사진 5점
		12월	
	속초시노인복지관	10월	미술 5점, 사진 5점
		11월	미술 10점
		12월	사진 10점
	꿈이랑	10월	미술 10점
		11월	사진 10점
		12월	미술 10점

협회 회원들이 월 1회 작품을 전시·철거를 진행하였고,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올해도 9월부터 11월까지 해밀요양원 등 5개 단체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작품
9월	해밀요양원	미술 10점
	속초교육도서관	사진 10점
	속초교육문화관	미술 5점, 사진 5점
10월	해밀요양원	사진 10점
	속초시립도서관	미술 5점, 사진 5점
	속초교육문화관	미술 10점
11월	해밀요양원	미술 5점, 사진 5점
	속초시립도서관	사진 10점
	한화리조트	미술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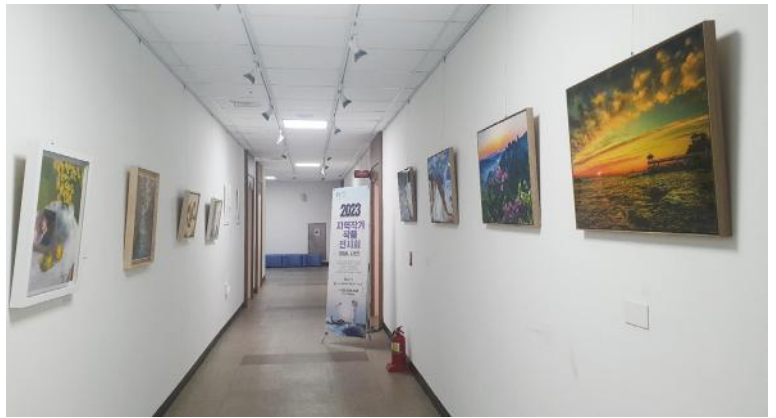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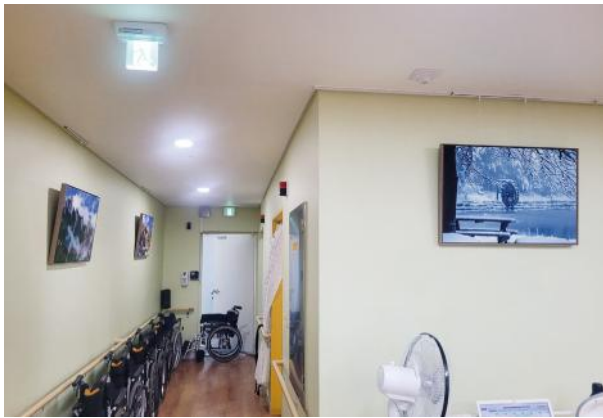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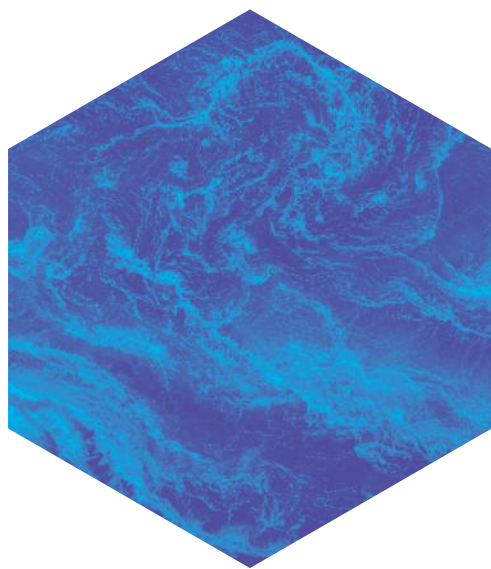


012

올해 이와 비슷하지만 색다른 전시가 진행되었다. 숙초문화관광재단과 숙초예총, 숙초민예총이 함께한 ‘움직이는 미술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관광객이 많은 호텔과 리조트에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이에게 작가들을 알리고, 호텔·리조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숙초시 문화예술과 관광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에 롯데리조트 숙초, 한화리조트, 마레몬스호텔, 설악켄싱턴호텔이 참여하여 8월 17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순회 전시를 한다. 숙초예총에서는 미술협회에 어영옥 작가, 사진작가협회에 임흥빈 작가가 참여하였다.

우리 지역은 전문적인 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전시 일정을 알고 작품을 향유하는 이도 많지 않다. 시각예술하는 이들은 항상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관람객이 함께하는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는 콘도 등에서 전시하는 협회, 카페 등에서 개인전을 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각문화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 빛을 수동적인 전시모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 많은 관람객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위한 다양한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만남, 내 詩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권 정 남 (시인)

1. 詩에 홀리다

내 문학의 발원지는 유년 시절 자연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이후로 두 번의 계기가 더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십 리 학교 길을 걸어 다니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사계절 자연의 숨소리와 변화무쌍한 풍광이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두 번째 계기는 이십 대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시인의 집> 회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회원 가입을 했다. 그날 이후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시 쓰기를 반복했다. 남산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지며 동인지 『시소리』 발간 및 시 낭독을 하면서 시의 단맛을 느끼게 되었고 서서히 詩에 홀려들기 시작했다. 감성이 예민한 나이다 보니 대양 같은 도시 한복판에서 詩라는 늪에 발이 빠지고 말았다.

유년 시절 자연의 두근거림과 설렘이 나에게 시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세 번째 시와 만나게 된 계기는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산과 바다 · 호수, 거대한 대자연과의 만남이다. 시를 사랑하는 ‘설악문우회’ 즉 <갈피> 회원들과의 만남이다. 그 무렵 두레박을 가슴에 내려 시를 끌어 올리면 시가 바닥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시 샘물 같은 시상이 가슴에 고이곤 했다. 그렇게 속초에서 시를 쓰면서 내 중년의 삶도 익어 갔으며 시를 생산하기 위한 피드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인 에머슨은 “두 종류의 시인이 있다. 하나는 교육과 실습에 의한 시인,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 또 하나는 타고난 시인,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했다. 나는 두 종류의 시인 중 어느 쪽일까. 학습에 의한 시인일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타고 난 시인일까 어느 쪽도 좋다. 시인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낯선 속초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수년 동안 쓴 내 詩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2. 내 안의 뿌리와 그 원초적 이미지Image

요즘 내 글쓰기는 프로스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건져 올리는 일이다. 세상에 나를 있게 한 원초적 뿌리와 만남이다. 세상 속에서 우연히 시적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것과 연관되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수십 년 전의 일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빙산의 일각 같은 그 순간을 바로 메모하며 무의식 세계에 두레박을 내린다. 내 안에 깊숙이 뿌리를 틀고 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그 순간 내 소중한 창작의 보고로 건져진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를 잊고 살아왔다. 중년의 어느 날 문득 그 뿌리들이 철렁쿨이 되어 내 몸과 영혼을 감아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캄캄한 동굴 같은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던 소중한 혈육들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며 자라기 시작했다. 순간 뿌리, 원초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다.

가자미를 구웠다
등속 뽀뽀한 뼈를 들어내니
결 고운 참빛이다

할머니 임종 전날 머리 빗겨 드리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참빛이 여기까지 왔다
반야선 타고 저승 가는 길에
레테 강을 건너시다가 물속에 빠뜨렸나 보다

그 빛이 먼바다로 흘러흘러 떠돌다가
가자미 등뼈가 되어
손녀 밥상에 올라왔다

그리운 참빛
뼈만 남은 할머니 손을 어루만진다.

—「참빛」 전문

내 시는 대부분 사물을 보고 느낀 연상 작용이나 보고 듣고 느끼는 영감 즉 메타포에 의해 쓰여진다. 가자미를 먹다가 살을 다 발라낸 후 등속의 뽀뽀한 뼈를 들어내니 영락없는 참빛이었다. “할머니 임종 전날 머리 빗겨 드리고 / 찾아도 보이지 않던 참빛이 여기까지 왔다 / 반야선 타고 저승 가는 길에 / 레테 강을 건너시다가 물속에 빠뜨렸나 보다” 참빛은 가자미가 되어 바다에 흘러 떠돌다가 손녀의 밥상에 오른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 까마득히 잊고 있던 할머니의 참빛이 가자미 뼈를 보는 순간 연상 작용에 의하여 다시 참빛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인연설과도 연관이 된다. 손녀딸을 키워준 할머니를 오매불망 못 잊어 그리워하다가 ‘참빛’ 같은 한편의 시를 쓰고 나서야 마음이 정화된 듯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강영환 시인은 「시와 소금」 문예지에서 「참빛」 시를 보고 ‘사물이 된 시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좋은 시다. 살아 숨 쉬는 시는 영원성을 얻는다. 진솔한 시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의미로 우리 시대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보름달을 닮는다

달 속에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할머니가
버선발로 웃으며 걸어 나온다

집안이 축제처럼 들썩이는 날이면
식구들은 명석에 꿰어앉아
기왓장 가루를 지푸라기에 묻혀
기도하듯 달을 닮고 또 닮는다

종갓집을 지켜온 고방 속 늦 제기들
그 형형한 눈빛이
터줏대감의 꽃꽂한 자존심이고 사리다

오늘도 보름달을 닮는다
늦그릇에 비친 내 얼굴에
아버지와 엄마가 마주 보며
걸어 나온다

발자국마다
달의 살점이 묻어 있다.

—「늦그릇을 닮다」 전문

시 「늦그릇을 닮다」도 「참빛」과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시다. 그릇 가게에서 우연히 늦그릇을 보고 연상 작용에 의해서 씌여진 시다. 60여 년 동안 무의식 세계에 갇혀 있던 겨자씨만 한 시의 씨앗이 발아한 것이다.

친정집 할머니는 안동 권씨 종갓집 종부로 일 년에 열두 번이 넘는 기제사와 명절 제사를 모셔왔다. 유년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고모, 엄마 등 식구들이 명석에 둘러앉아 지푸라기에 기왓장 가루를 묻혀 달을 닮듯 정성껏 제기를 비롯해서 늦그릇을 윤기 나도록 닦는다. 고무장갑이 없던 시절이라 손은 모두 숯 검댕이 되어 있었다. 그렇듯이 살면서 세상과 겪은 과거의 모든 경험은 창고 즉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게 마련이다.

“무한정 넓게 펼쳐진 무의식의 세계가 바다라면 의식은 그 한 가

운데에서 생기는 섬 즉 빙산 같은 것이라고” 용이 말했듯이 사람들은 빙산 같은 의식의 세계에 매달려 바쁘게 종종걸음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컴퓨터 수천 대와 맛먹는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던 창작의 모티브가 예술 활동에 활용되는 것이다.

내 어릴 적 신열을 앓을 때 / 밤새 나를 지키던 할머니 눈빛도 그랬다 / <중략> // 말없이 지켜본다는 것은 / <중략> //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란 것을 / 나는 기억한다

—「지켜본다는 것」 중에서

리비아 사막 둔덕 / 이팝꽃이 나뭇가지에 흔들리고 있다 // 생전에 즐겨 입던 할머니의 / 흰 저고리와 치마가 / 이팝꽃 나무에 걸려 펄럭인다 / 흰옷이 나를 본 듯 / 흙바람 속에서 몸부림치며 / 내 이름을 부른다

—「흰색에 홀리다」 중에서

시 「지켜본다는 것」 「흰색에 홀리다」 두 편 모두 까마득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건져 올린 시다.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엔 늘 할머니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릴 때 신열이 날 때마다 할머니는 밤을 새우며 나를 지켜보셨다. 그 지극한 정성이 오랫동안 내 삶 속에 스며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 「흰색에 홀리다」에서는 리비아 사막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흰 종이들이 이팝 꽃처럼 흔들렸다. 흰 한복을 입고 나무에 매달려 나를 부르시던 할머니 목소리가 바람 속에 환청으로 들려왔다. 위의 두 시의 공통적인 주제는 「참빛」 시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이다. 생전에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보시던 할머니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저승에 가셨어도 흰 종이웃을 입고 사망 줄에서 목이 쉬도록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칠십 년 책꽂이에서 있던 / 아버지를 내린다 // <중략> 책갈피마다 밑줄 그으며 / 써 내려간 잉크 빛 글자들 / 숲처럼 빼곡한 말 없는 말들 / 한 권의 목시록이다 / 딸에게 하지 못했던 이승의 말들이 / 아버지 눈빛이 되어 / 웃는 듯 우는 듯 / 나를 바라보고 있다 // 까슬한 손을 잡듯 / 책 속의 지문을 어루만진다 / 울컥 체온이 전달된다 // 기억에도 없는 / 아버지의 얼굴과 목소리들 / 피가 되어 내 몸을 타고 든다.

—「아버지의 책」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소재로 여러 편의 시를 썼다. 이승에 존재하지 않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진다. 아버지 역시 종갓집 대를 이을 종손이었지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집에 아버지의 흔적이라곤 거의 없는데, 벽장 속 건드리면 부서질 듯한 공부하던 책이 탐처럼 쌓여 있었다. 중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영어책을 꺼내서 펼쳐봤다. “책갈피마다 밑줄 그으며 // 써 내려간 잉크 빛 글자 / 숲처럼 빼곡한 말 없는 말들 / 한 권의 목시록이다 / 딸에게 하지 못했던 이승의 말들이

/ 아버지 눈빛이 되어 / 웃는 듯 우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책은 단기 4283년 4월에 출간된 책으로 마른 낙엽 같다. 누런 책갈피마다 70년 전 아버지의 지문이 체온으로 전달이 된다. 빛바랜 책을 통해 까마득 잊혀졌던 아버지가 내 가슴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부녀는 해후를 하게 된다.

한편 제5 시집에 실린 「달빛으로 오시는 이」 시 일부분. “음력 구월 보름, 향 피우고 촛불 켜자 / 달빛으로 오시는 이 <중략> // 갓 서른에 세상 떠난 아버지와 육십 대 딸이 / 마주 앉자 서로 낮이 선 듯 말이 없다 / 짧았던 이승의 인연 기억 할런지 몰라 / 늦은 밤 소지 울리며 배웅하자 / 보름달이 창창하다 / 달빛으로 오셨다가 떠나신 자리 / 잡수시던 밥그릇 뚜껑 열자 / 이팝 꽃 가득 눈물 담겨 있다.” 음력 구월 보름 제사를 모시며 상상의 세계에 갇혀 있던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달빛에 비유해서 쓴 시다. 이렇듯 무의식의 세계에서 건져 올린 이미지들은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크고 방대하다. 사실은 의식의 역할이 섬이라면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바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상략> 내 안의 축軸들, 마디마다 육신거린다 / 우후죽순 매듭을 딛고 자란 봄날의 시련 / 몸속 진액을 끌어 올려 키워 낸 성장점들이다 // 대나무처럼 울곤고 푸르기 위해 / 매 순간 바람 앞에 나를 채찍질한 / 삶의 마디, 마디들 / 그 단단한 매듭들이 생을 끌어 올린다

—「마디」 중에서

내 성장 과정을 작품해설로 쓰려고 하니 내 詩가 나에게 면담을 신청해 온다. 철이 들면서 가족사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했던 내 영혼의 마디를 생각하게 된다. 대나무를 자라게 해주고 키워 주는 것이 마디이듯 내 안의 뿌리, 즉 그 원초적 이미지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다. 내 어깨를 두드려 주며 결국 나를 이끌어준 성장점이며 마디들이 나를 지금껏 키워 왔다. 그러면서 대나무처럼 울곤고 푸르기 위해 매 순간 삶의 바람 앞에 나를 채찍질해 왔다. 그동안 나를 키워 온 마디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다.

3. 슬픔의 전이,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다

앞의 글들이 내 안의 뿌리를 찾아가는 글이었다면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의 길 위에서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오래도록 통증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다. 그 상처 때문에 잠을 뒤척이다가도 시로 쏟아내고 나면 아팠던 마음이 치유가 된다. 그렇듯이 삶의 중반기를 지나며 타인의 아픔이 전이되어 내 가슴에 못이 되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식탁 아래 나사못이 굴러다닌다

틈과 틈 사이에 조여 있던

자기 자리를 못 찾는다

뒤틀린 몸으로 평생 식탁을

떠받들었는데
기억을 놓쳐 버린 나사못
해쓱한 얼굴로 종일 거실 바닥을
뒹굴고 있다

식솔들의 나사못이 되어
한 치 틈 없이 팽팽히 삶을 조이며
살아오신 아래층 할머니
나선형 길 위에서
기억을 놓아 버리고
자신마저 잃어버린 채
묵은 시간 속에서 서성이신다

문득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반듯한 기억 하나 주위 들고
쏜살같이 달아난다.

—「나사못의 기억」 전문

위의 시는 이번 6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하다. 오래된 식탁에서 나사못이 빠져서 거실 바닥에 돌아다니는 걸 가끔 본다. 나사못은 제 자리를 벗어나면 틈새를 조이고 있던 자기 자리를 기억하질 못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항상 단정하고 정 많으셨던 아래층 할머니가 아파트 마당이나 도로변에서 길을 잃어버려 자주 헤매신다. 치매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몇 번을 손잡아 드렸지만 집은 물론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을 못 하신다. 힘든 현실에서 허리띠 조여 가며 열심히 살아와 박수 받으셔야 하실 분인데 안타까웠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질환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면서 쓴 시이다.

출근길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 할머니가 물걸레질하고 있다 <중략> 곁에 있던 자식 같은 은행나무가 / 왜 길바닥을 닦으시냐고 하자 / 육년 째 외로워서 닦는다고 한다 <중략> //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 당신의 눈물 같은 그 자리가 / 당신의 성소이고 생의 피안임을 / 차와 사람이 쉽없이 다니는 도로변에 // 남극과 북극보다 더 냉혹한 / 외로움의 극지가 있음을

—「외로움의 極地」 중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세 든 어르신들의 외로움에 익숙한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펴고 각종 문화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다양한 강좌로 다가가고 있다.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사람 구경을 하기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추우나 더우나 길바닥에서 6년째 물걸레로 경계석을 닦고 있다. 사람과 차들이 많이 다니는 출근길 도로변에 “남

극과 북극보다 더 냉혹한 / 외로움의 극지가 있음을” 침묵으로 호소하는 할머니의 절절한 메시지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늙어 감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들 스스로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도로변 경계석에서 6년 동안 외로움을 닦으시는 할머니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시로 짚어 봤다.

손수레 위에 힘겹게 쌓아 올린 / 신문지와 헌책, 종이박스들 / 무너질 듯 끌려가는 공든 탑이 / 돌담보다 단단하고 성스럽다 <중략> // 무한시공을 끌고 가는 저 수행자 / 아침을 깨우고 세상을 거울처럼 닦으며 /부처처럼 정중히 탑신을 모시고 / 타박타박 / 빙판길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

—「종이탑」 중에서

시 「종이 탑」은 5번째 시집에 실린 시로 영등포역을 비롯해서 KTX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시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추운 도시 골목에서 손수레에 쌓아 올린 종이박스와 폐휴지를 탐처럼 싣고 가는 할머니를 성자에 비유해서 쓴 시다.

이영춘 시인은 「종이탑」 시를 읽은 후 《문예정원》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따뜻하다. 이 시는 수레를 끌며 노동을 하는 노인을 신선한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노인이 끌고 가는 폐휴지 수거 수레에 마음이 머문다. 노동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그 정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여다.”라고 했다.

위의 3편의 시들은 복지사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할머니를 주제로 쓴 시들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인들의 삶과 대비되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유년 시절 할머니한테 자라서 그런지 길거리에 나가면 힘든 할머니들의 모습이 먼저 다가와서 마음이 아프다.

은행잎으로 날리던
못다 핀 꽃들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없드린 채 층층 탑이 된 잎들
뽕혀서 몸부림치다

죽음의 귀신을 내쫓던 할머니에
158여 송이 눈부신 꽃들이 잠적했다
심폐 소생술도 못 해보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돌아오길 소원하며
양손에 연꽃을 받쳐 들고
가지를 떠난 남은 은행잎들이
둥둥 북소리에 맞춰
허공에서 바라춤 추고 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시월 마지막 날

보름달 같은 바라를 들고 둥둥 두둥둥

158여 송이 눈부신 꽃들과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서

질펀하도록 바라춤을 추고 싶다.

—「바라춤을 추고 싶다 2」 전문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슬픔의 전이는 꼬리가 길다. 그 아픔이 오랜 앙금이 되어 트라우마가 된다. 2022년 10월 마지막 날(죽음의 귀신을 내쫓기 위한 헬러원 데이날) 이태원에서 158송이 젊고 눈부신 꽃들이 사라졌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민고 싶지 않은 큰 사건이다. 「바라춤을 추고 싶다 2」는 그들을 위해 흰 고깔모자를 쓰고 가사장삼을 입은 채 하늘과 땅을 품어 안고 둥둥 보름 달 같은 바라를 손에 들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에서 쓴 시다. 불교에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위해 재를 올릴 때 추는 춤이 바라춤이다. 꽃다운 젊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늦가을 노란 은행잎들이 몸을 뒤집으며 도로변에서 질펀하게 바라춤을 추고 있었다.

시 「버스 안, 나무 두 그루」에서 “손가락 끝에 매달린 언어들 / 춤추듯 울다가 웃는데 / 버스 안은 물밑처럼 고요 하다. // 어느 봄날 / 깃털처럼 날려버렸는가 / 세상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는 // 잃어버린 노래여 // 슬픈 언어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어 장애인이다. 버스 안에서 수화를 하며 그들은 떠돌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잃어버린 언어와 그들만의 노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버스 안은 그저 고요하기만 하다.

“내 안의 울음이 함께 출렁인다. // 슬픔의 전이는 꼬리가 길다”(「슬픔의 전이」)는 시외터미널에서 중년 여인이 몸부림치며 우는 모습을 보다가 그 여인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감정이입 되어 함께 울었던 적이 있다. 슬픔의 전이는 꼬리가 길어 내 몸과 영혼을 휘감아서 시를 안 쓰고는 못 배기게 한다. 사를 쓰면서 울음을 덜어내고 나면 슬픔이 조금씩 희석이 된다.

그렇듯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이되어 힘들 때면 이상국 시인의 「국수가 먹고 싶다」 시 일부가 떠오른다. “세상은 잔칫집 같아도 / 어느 곳에선가 / 늘 울고 싶은 사람이 있어 //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시를 생각하며 내 스스로를 위로받곤 한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이속해지다 보니 슬픔의 전이는 꼬리가 길어 오래오래 내 마음을 휘감아 쥐고 있을 수 있게 된다.

4. 전을, 예술을 통해 삶을 위로 받다

모든 예술에 있어서 가지는 달라도 뿌리는 동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삶이 힘들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림이나 음악·무용 등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글을 쓰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며 다양한 예술에 접근하다가 보면 폭넓고 깊이 있는 예술을 창작하게 된다.

<상략> 설익은 고독이 노란 별이 되어 요동칠 때 / 내 안의 사이프러스 나무도 자라기 시작했고 / 별이 빛나는 만큼 내 어둠도 깊어 갔다 // <중략> 다시 밤하늘을 건너가던 목화송이들이 / 포말이 되어 출렁일 때면 / 문밖에서 있던 고향가 뚜벅뚜벅 / 내 몸속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중에서

<상략> 세상과 타협 못 하는 / 불같은 성깔의 화가는 / 자신의 눈을 찌르고 / 일필휘지 자화상을 그린다 / 동자와 굵은 지팡이가 / 눈보라 속을 걸어간다 // 비수 같은 고독이 회오리치는 밤 / 초가집 검둥이 한 마리 / 화선지 밖으로 뛰쳐나온다.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 중에서

가야금 선율에

죽음과 삶의 현이 물결처럼 출렁인다

언어 이전의 원초적 웃음과 울음

여인의 비명소리 공포의 절정이다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흐느끼듯 이승을 건너가는 신음 소리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은

살아 있음이 꽃자리인 것들

가야금 선율에 휘감기는

삶과 죽음의 긴 실타래

미궁迷宮에 들다.

—「미궁에 들다」 전문

예술가들은 누구나 창작을 위해 산통을 겪게 된다. 그 무한의 감성 앞에 숙연해질 때가 많다. 예술 속에서 자신을 만나듯 고통과 희열에 젖기도 한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친구 고갱과 말다툼을 한 후 귀를 자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하며 쓴 글이다. 생의 말기에 정신병원에 있을 때 남색 하늘과 주먹만 한 노란 별들이 포말 지듯 그려진 그림은 고흐의 불안한 정신세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고흐가 추구하던 이상의 세계이다. 5번째 시집 제목이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서』이다. 고흐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사이프러스 나무 역시 내 삶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로 해석이 된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화가였다면 조선의 후기 화가 최북 역시

고관대작이 탐탁지 않은 그림을 부탁하자 자기 그림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본인의 눈을 찔렀다. 「풍설야귀인」은 당나라 시인 유장경의 「봉설숙부용산 시에서 가져온 그림이다. 손가락에 먹물을 묻혀서 그린 지두화로 최북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동자와 함께 걸어가는 자화상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본다. 세상과 타협을 못하는 등 굵은 노인의 고독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든다. 소스라치는 겨울밤이다.

가끔 고 황병기 님 가야금 연주를 듣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꿈꾸곤 한다. 작품 「미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인 희로애락의 감성을 선율에 실었다. 가야금 특유의 서정적인 가락이 아닌 죽음과 삶, 울음과 웃음이 교차하는 전율 속에 해괴하고도 역동적인 가락들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삶과 죽음의 실타래가 가야금 가락에 휘감기듯 소름 끼치는 전율에 휩싸이게 된다. 극과 극의 세계를 영감으로 표현한 곡으로 고정관념에 젖어 있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웠다.

글을 쓰면서 그림과 음악 등 다양한 예술세계와 접하다 보면 번뜩이는 영감이 뇌리에 스치게 되고 그 영감은 소중한 창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서로 다른 예술세계를 접목하여 글로 형상화시키다가 보면 우주와 같은 세계가 다가오기도 한다.

5. 다의어多義語로 언어유희를 즐기다

사전적 의미로 다의어란 한 개의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을 가진 낱말을 말하는 것이다. 글을 쓰다가 보면 가끔씩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낱말이나 단어를 필요에 의해서 쓸 때가 있다. 그러다가 보면 무의식 중에 말놀이 즉 언어유희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어휘들을 시나 수필에서 우연히 만나면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중년에 접어들면 여기저기에 질환이 나타난다. 그 질환들을 시로 표현하며 소리는 같아도 뜻이 전혀 다른 낱말로 글을 쓰면 말놀이 같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눈앞에 미세한 벌레가

비문飛蚊으로

떠다니는가 싶더니

ㄹㄹㄹㄹ

ㅋㅋㅋ

ㄷㄷㄷㄷ

아침 한나절

안경에 딱 붙어 꿈쩍 않는다

담으려고 하면 금세 사라지고

안경을 쓰면 또 달라붙어

나를 조롱하고 있는

비문非文들

절절한 문장도 못 되는 것이

—「비문증」전문

오른쪽 어깨부터 손끝까지 움직일 수 없다 / 그런 나를 사람들이 '담에 걸렸다'고 한다 // 옛 친정집 담牆 위에는 / 밤이면 달과 별이 걸려 있고 / 낮이면 박넙쿨과 구름이 걸려 있었는데

—「담에 걸렸다」중에서

낮에 긴장한 탓인지 다리에 쥐가 났다 // 오래전 농가 주택에 머무른 적 있다 / 추워진 날씨 때문에 한밤중 쥐들이 / 천정을 쏘다니며 짹짹했다 / 그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쥐, 잠 못 이루다」중에서

<상략>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심야 시그널 뮤직이 라디오에 흘러나오던 그 시절 / 설익은 고독이 노란 별이 되어 요동칠 때 / <중략> / 별이 빛나는 만큼 내 어둠도 깊어 갔다 // <중략> / 문밖에서 있던 고흐가 뚜벅뚜벅 / 내 몸속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 고흐」중에서

중년에 흔히 겪는 시력의 노화현상으로 비문증을 써보았다. 비문은 눈 앞에 검은 점이나 날파리 같은 물체가 보이거나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 어김없이 내 눈에도 비문이 찾아왔다. 눈을 비비고 안약을 넣어도 계속 따라다닌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비문 때문에 절절히 쓰고 싶은 문장이 제대로 안 써져서 비문이 되곤 한다.

어느날 오른쪽 등을 비롯해서 어깨 손끝까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이 '담에 걸렸다'고 한다. 통증이 가시지 않은 어느 날 회귀본능이듯 여름이면 박넙쿨이 걸려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걸려 있던 친정집 담이 생각이 났다. 통증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던 담이 동음이의어가 되어 '담에 걸렸다' 시로 다시 태어났다.

「쥐, 잠 못 이루다」에서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 못 이루 때가 많다. 수년 전 농가 주택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늦가를 추위 때문인지 들쥐들이 집으로 들어와 천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잠을 이루질 못했다. 어휘가 같은 쥐 때문에 잠을 설친 것이다. 잠을 못 이루게 한 쥐라는 어휘가 공교롭게도 동일해서 '쥐, 잠 못 이루다'라는 발상이 떠올랐다.

「별이 빛나는 밤에 - 고흐」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문장의 절이나 문장의 구가 되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 병동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림 제목이다. 1970년대 젊은 청춘들한테 인기였던 모 방송국에 진행하는 심야 음악 프로그램 이름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사춘기 시절 내 희망과 여문 꿈이 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둠도 함께 깊어가는 나의 방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별이 빛나는 밤에’ 구는 다의어인 동시에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을 살펴보면 뜻과 소리가 다른 어휘들이 많이 있다. 그 예로 먹는 ‘밤’과 캄캄한 ‘밤’ 과일 ‘배’가 있고 우리 몸에 ‘배’가 있다. 그렇듯이 뜻은 달라도 소리가 같은 어휘를 가지고 창의적 기법으로 시를 쓰다가 보면 언어유희 말놀이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어휘들을 발상의 전환으로 글을 쓰면 엉뚱한 생각이지만 창작의 새로운 기법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6. 여행, 삶을 충전해 주는 배터리다

누군가 말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고 했듯이 여행은 넓은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많은 견문을 익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행이 필수 요건이다. 매티 멀린스는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어제의 당신이다.”라고 했듯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일상에 갇혀 있던 시간들과 고정관념을 떨쳐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통하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낯선 여행지 곳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은 작가를 비롯하여 많은 예술가들한테는 창작의 모티브를 주는 보약과도 같다. 개인적으로 국내외 여행은 내게 있어 활력소가 되고 삶을 재충전해 주는 배터리가 된다. 배터리의 에너지는 길게는 3년까지 가지만 충전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꿈꾸게 된다.

사막에 별들이 떠난 자리 해가 떠오른다
석류가 객혈하듯 붉은 물결로 출렁이는 모래들
불가마 되어 자글자글 제 몸을 끓이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 중천을 떠돌던 해가
오벨리스크 두 개 돌기둥 사이에
둥근 사과로 끼어 있다가
나일강 하구에 붉은 낙관 찍어 놓고
갈대 발머리에 투신한다
까무룩 출렁이는 울음들

사막의 태양 람세스와 모세
그 뜨겁던 우정과 배반이
카르낙 신전 꼭대기에서
붉은 깃발로 펄럭인다.

—「사막의 해」 전문

<상략> 영생을 꿈꿨던 무덤 속 궁궐 / 유품이 도굴될까 쫓고 쫓기는 / 깊은 왕가의 계곡을 / 황금 마스크 미소녀 투탕카멘이 / 반짝이는 눈으로 지키고 있다 // 오늘도 동굴 속을

기웃대는 / 이승의 관람객들한테 / 파라오들은 추파 던지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

—「왕가의 계곡」 중에서

팬데믹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집트를 다녀왔다. 카르낙 신전을 가기 위해 새벽 6시쯤 리비아 사막을 관통하며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막에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았다. 동해 아침바다 일출 못지않게 장엄했다. 곧바로 그 뜨거운 햇덩이를 내 詩 속으로 끌어당겼다. 광활한 모래 위에 이글거리는 태양은 시 「사막의 해」에서 람세스와 모세로 상징이 되고 한때 뜨겁기도 하고 냉엄했던 그들의 우정이 카르낙 신전 꼭대기 붉은 깃발로 펄럭이고 있음을 상상했다.

결국 시 창작 기법에서 중요한 건 비유와 상상이 아닌가. 피라미드와 �핑크스도 기억에 남지만 영생을 위해 설계한 파라오들의 무덤 속 궁궐인 ‘왕가의 계곡’은 어마어마했다. 중국 서안의 진시황 무덤이 생각났다. 현생보다 내세를 소중히 여기며 죽어서도 영생을 소망하던 파라오들의 수많은 유품들이 이미 많이 도굴되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BC 3천 년 전 유적이나 유품들이 관리 소홀로 분실이 된 것이다.

여행은 세 번 독서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떠나기 전에 여행지에 관하여 예습을 하고, 도착해서는 현장을 체험하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녀온 후에 사진이나 여행 자료를 참고하며 복습하는 것이다. 그러면 완벽에 가까운 서서 하는 독서를 한 셈이다. 기원전 3천 년경의 이집트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소설 『람세스』 5권을 십 년 전에 읽었는데 이집트를 다녀와서 다시 정독을 했다. 그 느낌이 달랐으며 사막의 태양이 가슴에 와닿은 듯 뜨거운 불길이 내 안에서 용솟음쳤다.

<상략> 한밤중 비단 이불을 덮고 누우니 / 비 오듯 누에들 뽕잎 먹는 소리 들리고 / 수 세기 전 비단길을 열어가듯 / 푸벅푸벅 사막을 횡단하던 / 낙타들의 고단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 누에 몸에서 나온 날개가 깃을 치듯 / 이강의 눈부신 노을이 / 방안까지 따라와 넘실거리고 / 발치 끝 / 무성한 뽕나무발 한 자락이 일어선다.

—「누에 깃을 치다」 중에서

또한 여행지에서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연상하며 쓴 작품으로 「누에 깃을 치다」가 있다. 중국 계림에서 다홍빛 비단 이불을 산 후 누에와 뽕나무발을 생각하며 쓴 시다. 「당나귀 귀」는 중국 훈춘에서 당나귀 귀 요리를 보고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떠올라 당나귀를 연상하며 쓴 시다.

「시계에 갇히다」는 스페인서 사 온 작은 도자기 시계가 멈춘 것을 보고 거리마다 서성이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다. 「문득, 천년의 미소가」에서는 캄보디아 유적지 181개 미소 띤 석상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삶 속에서 웃음과 미소의 의미를 떠올리며 쓴 시다.

여행지에서 겪었던 전율의 순간들을 메모하고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한 편의 시가 탄생되는 것이다. 여행이야말로 광활한 바다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무한한 창작의 산실다.

고깔모자 쓴 흰나비들이
통일대불 앞에서 바라춤을 춘다
팽과리 날라리 소리가 울음을 끌고 간다

물집투성이 몸으로
태평양 건너 바람으로 떠돌던
성자의 화상畫像이 돌아왔다

총소리 대포 소리
한국 전쟁에 사람이 다치고
가족이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부처님의 화상畫像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시왕도十王圖가
전쟁 통에 사라졌다가 66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찢어지고 해체된 몸
꿈에서도 설악산을 흔들던 바람 소리
바다 건너 이역만리에서 불면의 밤을 설쳤다

태평양 건너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설악산 신흥사로 돌아온 축제의 날
사부대중, 설악산 나무들과 바람, 계곡물까지
맨발로 뛰쳐나와 일주문 앞에서 오체투지 한다

본지환처本地患處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눈물겹다

버선발로 뒷걸음치다가 다시 돌아서는
고깔 쓴 흰나비 떼
금빛 바라로 청남 빛 하늘을 펼치자
설악산이 서기瑞氣로 일렁인다.

—「본지환처本地患處」 전문

한편 국내 여행지 몇 군데 다녀온 곳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치가 수려하고 지리적으로 명당인 곳은 대부분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주로 동해에 자리한 사찰을 시로 썼다. 설악산 신흥사를 소재로 쓴 몇 편의 시는 속초 편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본지환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한국전쟁에서 사람이 다치고 가족들이 헤어진 것만은 아니다. 신흥사에 있던 성보문화재가 전쟁 통에 사라졌다. 훗날 알고 보니 신흥사에 주둔

했던 미군 병사가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열점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왔다. 그 후에 우연히 애타게 찾던 문화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 무단 반출되었음이 알려졌다. 여섯 군데를 칼로 찢어 놓은 <영산회상도>를 미국에서 복원한 후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여섯 점을 비롯하여 신흥사 스님들과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원회' 회원분들이 애쓴 덕분에 66년 만에 설악산 신흥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왕도> 네 점은 미국 뉴욕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20년 11월 9일은 축제의 날이었다. 신흥사 통일대불 앞에서 설악산 바람과 계곡물, 나무들이 함께 추는 바라춤을 시작으로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여섯 점 귀국 환영 기념 법회가 열렸다. 66년 만에 고국을 떠나 헤어졌던 성보문화재 일부가 「본지환처」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어서 통일이 되어 북에 고향을 둔 신향민들이 가족들과 상봉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련암 처마 아래 삼족섬을 쓰다 듬는다 // <중략> 그를 쓰다듬으면 재물이 들어오고 소원이 / 성취된다는 말에 사람들은 황금두꺼비를 쓰다듬으려고 / 땡별에 줄 서 있다 // <중략> 다리가 셋인 황금두꺼비 이마와 발을 / 붙잡고 손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 지나가던 바람이 어깨를 툭 친다

—「삼족섬三足蟾을 쓰다듬다」 중에서

작품 「삼족섬을 쓰다듬다」는 낙산사 홍련암에서 삼족섬을 만져 보고 난 후에 쓴 시이다. 시에서 인간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 끝이 없다. 고요한 법당에서 마음 비우는 기도를 하고 나오자 나를 비롯해서 돌아서서 “재물이 들어오고 소원이 / 성취된다는 말에” ‘삼족섬’을 쓰다듬으려고 보살들은 줄 서 있다. 홍련암 앞 바다 파도까지 내 뒤에 줄 서 있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시로 써서 독자들에게 해프닝을 자아내게 했다.

「능을 거닐다」는 경주 대릉원 천 년 전 왕들의 무덤이 소왕국을 이루어 놓은 듯하다. 천마총을 보며 죽어서도 영생을 기원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왕가의 계곡을 연상했다. 궁궐 같은 무덤에 관한 긴 글을 쓰고 싶었다.

이번 시집에 게재된 기행시는 외국과 국내 여행에서 만나고 느낀 소회를 시로 표현해 보았다. 여행은 진솔한 자신과의 만남이며 성찰이다. 나에게 있어 여행은 나를 충전시켜 주는 배터리이며 내 삶을 풍요롭고도 성숙하게 해준다. 그 유효기간이 오래 가서 행복하다.

7. 시, 속초를 그리고 또 그리다

속초에 처음 이사 오던 날 각오를 했다. “시인은 영혼의 화가이다.”라고 디즈레일리가 말했듯이 ‘그래, 속초에 있는 한 속초의 모든 것을 내 작품 노트에 담으리라’고 하면서 내 시 속에 속초를 그리고 또 그려보자 하고 다짐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면서 설악산

과 속초를 시와 수필로 여러 편을 썼다.

그리고 『갈매』 동인지나 각종 문예지에 발표를 했으며 첫 시집 제목도 『속초바람』이다. 이젠 대청봉 바람이 나를 붙잡아 속초를 떠나질 못한다. 그렇게 속초 사람이 되어 내 머리카락에도 끈적한 소금 냄새가 났으며, 속초의 눈부심에 흠뻑 젖어 살았다. 그런데 요즘 속초가 수상해져 가고 있다. 고층 아파트와 높은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자 속초 시내에서 잘 보이던 대청봉과 동해 바다가 보이질 않는다. 서울에서 바닷가 마을로 이사왔을 때 낯설었는데 요즘은 눈부시게 변화되는 속초가 다시 낯설어지고 있다.

1) 설악을 노래하다

이십여 년 전 3월 이사오던 날은 꽃샘추위와 함께 밤새 부는 바람 소리 때문에 유배지에 온 듯 했다. 그 무렵 속초에서 처음 만난 엄청난 바람을 보고 「속초바람」에 대한 연작시 10편을 썼다. 점차 시간이 지나자 겨울 설악과 미시령, 바다와 호수, 속초의 풍광들이 수목화가 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청호동 신흥민들의 애환이 나의 아픔이 되어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왔다.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 사계절 변화무쌍한 설악산이 거대한 아이맥스 영화관 같아서 자주 오르다가 보니 비선대, 토왕성 폭포, 신흥사, 흔들바위와 울산바위 등 다양한 모습의 설악을 원고지에 그리며 시를 쓰고 또 쓰며 행복했다.

토왕성 빙벽 폭포 정수리
넘어가는 해가 없혀 있다
누가 켜놓았는가 거대한 촛불이다

사람들은 촛불을 친견하려고
촛농으로 굳어진 차가운 벽에
얼굴을 비비며 거미처럼 오르고 있다

살아가는 일이 때론 빙벽을 오르듯
절체절명 고독 같은 것임을

토왕성 계곡을 빠져나온 세찬 바람에
촛불은 꺼지고
얼음벽에 매달려 흔들리는 거미들
견고한 고독을 즐기고 있다.

— 「견고한 고독」 전문

<상략> 담벼락 어깨와 등을 밟고 올라간 죄 / 단풍 들면 힐끗힐끗 법당을 염탐하며 / 현란한 옷자락과 붉은 입술로 보살들을 희롱한 죄 // <중략> // 신흥사 담쟁이 줄기가 / <중략> 가슴에 참회록 같은 / 반성문을 쓰고 있다 빼곡하다.

— 「반성문을 쓰다」 중에서

수백 년 암각문에 갇힌 시인 묵객들 /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자 / 꿈틀거리며 암반 위로 걸어 나온다 // <중략> 계곡을 흐르는 바람 소리, 물소리 / 호연지기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 / 얼쑤, 무릎장단 맞춰 창 하는 소리에 / 봉우리마다 설악의 문이 열리고

— 「비선대 암각문」 중에서

CD 루이스는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설악산을 마음에 담으며 수목화를 그리듯 설악을 원고지에 시로 그리고 또 그렸다. 세 번째 시집 제목이 『물푸레나무 사랑법』이다. 또한 첫 수필집 제목이 『겨울 비선대에서』다. 설악을 주제로 시와 수필을 여러 편 써서 각종 문예지에 발표를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소재가 무궁무진한 설악의 사계절 중에 나는 겨울 설악 그 엄숙하고 비장한 침묵을 좋아한다.

이번 시집에는 겨울 설악을 묘사한 「견고한 고독」을 실었다. 비룡폭포 정상에서 건너다 보이는 토왕성 빙벽 폭포 해넘이를 보고 쓴 시다. 겨울이면 밧줄에 의지하여 토왕성 빙벽폭포를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상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다. 빙벽폭포 정상에 넘어가는 해가 없혀 있는 모습은 촛농이 흐르는 거대한 촛불 같다. 어찌면 침묵하는 대자연 앞에 몇 필의 흰 고독이 견고한 모습으로 걸려 있는 느낌을 준다. 겨울 토왕성 폭포를 주제로 시를 쓰다가 보면 “시란 강력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회상되는 감정에서부터 솟아난다.”라는 위즈워스의 말이 생각이 난다. 이백은 중국의 여산폭포 물줄기를 보고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다고 했다. ‘망여산폭포’가 저랬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산문 밖에서 허덕거리는 삶을 벗어나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서게 되면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문득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접했을 때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은 엔돌핀의 사천 배가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무한정으로 생성된다고 했다.

시 「반성문을 쓰다」는 신흥사 담벼락에 빼곡히 매달린 붉은 담쟁이가 성찰하듯, 결국 시인은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늦가을 신흥사 담벼락에 누구나 공감하는 고해성사 같은 반성문을 쓰게 된다.

작품 「비선대 암각문」에서는 비선대를 찾은 옛 시인 묵객들이 너럭바위에 자신의 이름과 남기고 싶은 글들을 각자로 많이 새겨 놓은 풍경을 노래했다. 바위 위로 유수 같은 세월이 물과 함께 흘러도 암각문이 된 글자들은 흘러가거나 깎이질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유서 깊은 관광지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면 자연 훼손으로 엄청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비선대 물소리 들으며 역사 속 시인 묵객들의 친필을 만나며 그들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회고해 본다.

2) 속초, 묵은 옷 벗고 새 옷 갈아입기 한창이다

금년이 속초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뜻 있는 해이다. 자고 일어나면 속초는 변화하고 있다. 저녁이면 청초호수를 배경으로 색색 조명으로 새로이 단장한 엑스포장 야경은 환상적이다. 흡사 외국 어느 나라의 야경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2027년이면 용산과 속초 구간 KTX가 연결이 되고 속초는 강원도에서 급부상하는 관광 및 교통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이유로 요즘 속초는 변화하고 있다. 즉 묵은 옷을 벗고 새 옷 갈아입기에 한창이다.

사흘 후면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길 염원했던 실향민들이 한 분씩 북망산으로 떠나고 수북 도시 속초는 변화의 물결 속에 치솟는 땅 값과 함께 이제 옛날 속초가 아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현실 앞에서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오징어들이 허공에서 / 만국기처럼 / 펄럭이던 때가 있었다
<중략> // 긴 세월 빛바랜 빨래로 널려 있던 / 눈이 붉은 오징어들 / 하나둘 북망산으로 떠나고 // 70년 청호동 하늘을 떠받들던 / 슬프고도 긴 바지랑대 / 뒤태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 뼈거덕 그렇게 사라졌다.

—「슬픈 바지랑대」 중에서

선글라스에 걸린 웃음들 / 호객 행위와 수다에 비린내 대신 / 돈 냄새 폴폴 날리는 아바이 마을 // <중략> 판잣집 문 앞 흘러진 신발들과 / <가을동화> 포스터까지 / 실향민 박물관으로 모두 이사를 갔다 // <중략> 청호동엔 청호동이 없다.

—「청호동이 없다」 중에서

청초호수 위에 미끄러지는 불빛이
만장이 되어 펄럭인다
요령 소리 앞세우고
꽃상여 타고 떠나는 황천길
나 이제 이승을 하직 한다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서던
북쪽 고향 집 마당에서
노제라도 지내고 싶구나
불쌍한 내 영혼을 위해
한밤중, 청초호 검은 물결 위로
오색 만장輓章이 펄럭이며
나를 배웅하는구나

—「청초호 야경 2-만장輓章」 전문

살아오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속초에 이사 와서 처음 타본 갯배하고 청호동 골목마다 오징어가 만국기처럼 펄럭이던 풍경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실향민들의 삶을 오징어에 비유해서 「오징어 덕장이 있는 청호동」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그러나 2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 오징어는 안 잡히고 가격이 하늘을 치솟자 오징어 덕장도 바

지랑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지금은 텅 빈 덕장이 주차장으로 변했거나 잡초만 무성하다.

「청호동 야경 2-만장」은 제5시집에 실린 시로 이산 일 세대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황천길 떠나고 있다.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서던 고향 집 마당에서 노제라도 지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다. 청초호수 불빛이 만장이 되어 미끄러지며 그들을 배웅한다. 얼마나 절절한 마음인가. 분단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청호동이 없다」는 「슬픈 바지랑대」와 같은 맥락에서 쓴 시다. 휴전 후 실향민들의 삶을 상징하던 청호동의 모조품 갯배를 비롯하여 조립식 판잣집, 고기잡이하던 그물 등 실향민들의 일상이 속초 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오늘날 물결우선주의 시대가 되다보니 세상은 초 단위로 변해가고 상업화 물결에 청호동 역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광객들은 70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청호동의 아픈 속살을 살피기보다는 커피잔을 들고 아바이 마을 골목을 거닐며 금강교와 설악교를 배경으로 바다 풍경이나 갯배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기에 바쁘다. 청호동의 낡고 빛바랜 판잣집과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상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 따라 묵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건 당연하다.

<상략> 전쟁이 끝나자 속초역이 사라졌다 // <중략> 피난 보따리 머리에 이고 / 속초역 플랫폼을 빠져나올 때 눈물 흘리며 따라 나오던 기적 소리 // 오징어 배 따고 그물 낚던 손길들 / 영혼이나마 고향 땅으로 가려는 듯 / 이북 오도민 묘역, 이산 일 세대 봉분들이 / 휴전선 지나 북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실향민들 가슴에 칠십 년 동안 / 울고 있는 원산행 기적 소리 // 분명, 속초엔 속초역이 있다.

—「속초엔 속초역이 있다」 중에서

몇 년 전에 「속초엔 속초역이 없다」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다시 「속초엔 속초역이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시를 써서 한국시인협회 사회집에 두편 모두 발표한 적이 있다. 속초에 와서 사람들에게 속초역과 철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철길은 보이지 않았다. 속초역이 있던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지만 역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역은 이미 철거가 되고 속초시립박물관에 조립식 모형으로 만든 역이 있었다.

원산까지 달리며 물자 수송과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고 남과 북의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던 역이 사라졌다. 전쟁 후 이산의 상징이던 속초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산 일 세대들이 점차 북망산으로 떠나고 있다. 시 「청초호 야경 2-만장」은 5번째 시집에 실린 시로 이승을 하직하는 그들의 황천길을 배웅하듯 청초호수 불빛이 만장처럼 밤 청초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아픈 모습을 시로 썼다.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실향민들 가슴에는 동해 북부선 원산행 철

길과 속초역 기적 소리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으리. 북에 고향을 두고 온 그들한테는 분명 속초엔 속초역이 살아 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언제부터인가 속초에 상륙했다

다홍빛 아침 해가 바다를 물들이면
사람들은 태양신을 접견하려고 바닷가에 모여들고
투기꾼들은 깃발 흔들며
바람의 방향 잡기에 분주하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장엄한 불후의 성 마치 소리 따라
바다가 보이고 층이 높을수록
아파트는 미다스 손이 된다
갈매기들이 일제히 피켓 들고
방파제 위에서 아우성치지만

속초, 그리고 오벨리스크
파도들의 벽돌 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속초, 그리고 오벨리스크」 전문

<상략> 보름달이 신음하고 있다 // 고층 아파트와 건물 /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길 잃은 달이 / 콘크리트 벽과 벽 사이
에 끼어 /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 <중략> / 달이 신음하
고 있다 / 나도 잠 못 이룬다.

—「달이 신음하고 있다」 중에서

2027년 KTX 개통을 앞두고 교통중심 도시가 될 속초는 급변화 하고 있다. 시가지는 재개발 붐이 일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분명 속초도 묵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러나 속초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수복 도시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고 보유해야 할 속초의 소중한 옛것들이 사라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속초 어디를 가도 보이던 설악산과 바다가 고층 아파트의 난립으로 보이질 않는다. 속초 곳곳에는 신축 아파트와 건물을 짓기 위한 망치 소리가 한창이다. 마치 이집트 오벨리스크처럼 높아지는 건물 때문에 청초호수 철새들이 이동할 때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을까 아니면 허공을 건너가던 달이 빌딩이나 건물 사이에 끼어 신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 「속초, 그리고 오벨리스크」와 「달이 신음하고 있다」에서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속초의 현실을 써봤다.

영랑호수 뒷산에 화상 입은 / 등 붉은 고래 몇 마리가 / 었드
려 있다 <중략> // 4월 화마가 불춤 추며 숲을 태우고 / 만개

한 진달래가 연기 되어 날아가던 날 / 온몸에 화상 입은 고
래들 // <중략> 전생이 그리운 등 붉은 고래들 / 었드려 숨
물어쉬며 적멸에 들고 있다.

—「등 붉은 고래의 소원」 중에서

2019년 4월 4일 미시령과 고성 원암리 사이에 있는 야산에서 산 불이 발화했다. 대형 산불이 미시령 아래 고성과 속초를 덮쳐서 공포와 함께 불의 도가니가 되었다. 영랑 호숫가에 불들이 뛰어다니고 건너편 산들은 온통 붉은 파도가 되어 넘실대는 듯했다. 그 후 일 년 뒤 불길에 휩싸였던 영랑호수 뒷산들을 보니 등에 화상을 입은 수십 마리 거대한 붉은 고래들이 었드려 있는 것 같았다. 처다만 봐도 화상 입어 화끈거린 자리가 쓰리게 와 닿았다. 그 자리에 다시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등 붉은 고래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 이 시는 산불로 인하여 소나무가 타 버린 화상 입은 산의 모습을 전혀 이질적인 등 붉은 고래를 접목해서 화상과 붉음을 동일시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써보았다.

8. 돌아보는 삶, 성찰하는 삶을 꿈꾸다

이번 6번째 시집 『나사못의 기억』은 스스로 내 詩 앞에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했다. 서두에는 유년부터 중년까지 깨달음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詩에 홀리게 된 연유를 썼다. 오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니 내 삶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자연의 향연이 펼쳐졌고 그렇게 내 詩心を 키워 준 꽃자리들이 나를 시인이 되도록 길을 터주었다.

「참빛」 「늦그릇을 닦다」 「아버지의 책」 같은 시를 쓰면서 내 안의 뿌리, 그 원초적 이미지들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했다. 창작은 내 안에 동굴처럼 웅크리고 있던 무의식의 세계를 흔들어 깨우는 자아 발견이었다. 그 속에서 빛을 찾아 동굴을 더듬다가 보니 내 존재의 뿌리들이 섬광처럼 다가왔다. 그런 연유로 발설하고 싶지 않던 가족사를 시에 언급하며 카타르시스와 함께 마음이 정화되고 편안해짐을 느꼈다.

또한 살아가면서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슬픔의 전이를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다. 슬픔의 전이는 꼬리가 길다. 작년 10월 마지막 날 헬러린 데이의 아픔과 통증은 꼬리가 너무 길어서 좀체 치유가 안 될 것 같다. 「바라춤을 추고 싶다 2」는 그날의 통증을 시로 쓰며 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다.

현대 사회의 단절과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과 질병, 치매와 생계 문제들이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다. 그런 소외계층의 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의 아픔을 염두에 두고 「외로움의 극지」와 「종이탑」을 썼다.

가끔은 주제가 선명한 그림이나 음악 등 그 외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이 전해주는 희열과 전율을 느끼며 공감대를 갖게 된다. 그림 「풍설야귀인」과 음악 「미궁에 들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글을 쓰면서 우리말 다의어나 동음이의어에서 오는

기교적인 표현에서 가끔씩 말놀이 같은 언어유희를 의식적으로 묘사하며 창작을 즐기기도 한다.

한편 국내외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시로 썼다. 「사막의 해」 「왕가의 계곡」 「누에 깃을 치다」 「삼죽섬을 쓰다듬다」 등 서로 다른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현장 체험까지 하고 돌아와서는 열심히 복습까지 한다. 내가 쓴 기행시를 읽으니 낯선 거리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되어 서성이던 내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여행은 나를 충전시켜 주는 배터리가 되어 삶을 풍요롭고도 성숙하게 해준다.

「본지환처」 「비선대 암각문」과 「견고한 고독」 그리고 「청호동이 없다」 「속초엔 속초역이 있다」 시를 쓰면서 속초와 설악을 시로 그렸다. 속초에 이사 오던 날 내 작품 노트에 속초의 모든 것을 흡수시키리라 하며 스스로 다짐을 했다. 속초의 자연 풍광을 시로 그리며 행복했고 실향민들의 아픈 삶을 시로 표현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내 시가 속초와 살 섞이며 익어감에 감사했으며 내 작품 노트에 속초 그리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요즘 속초가 묵은 옷을 벗고 새 옷 갈아입기에 한창이다. 그런 모습이 때론 낯설고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적응되리라 믿는다. 전쟁의 상흔이 생생하게 기록된 바닷가 소박하고 작은 도시가 영원히 지워질까 걱정이다.

6번째 시집 『나사뭇의 기억』을 엮으며 수년 동안 써온 내 시의 문을 열고 이 방 저 방 들어가 살펴보았다. 그 방들의 구조나 빛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에는 자신의 숨결과 체취가 남아 있어 익숙했고 비밀을 훑쳐보듯 속울음을 삼키기도 했다. 시인 스스로 본인 작품해설을 쓴다는 건 독자들과 간격을 좁히는 계기도 되겠지만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삶을 다시 꿈꾼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와 재회하며 자아와 손을 잡고 삶의 순간마다 마음 안에 견고한 탑을 쌓아가듯 글을 쓴다.



권 정 남

등단 : 1987년 『시와 의식』시 등단, 2016 『현대수필』 등단
저서 : 시집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서다』외 4권 출간
수필집 『겨울 비선대에서』출간
수상 : 전영택 문학상, 강원문학상 외 다수 수상.
활동 :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및 속초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일상의 어휘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스토리텔러

김 중 헌 (시인)

1. 들어가는 말

2017년 첫 시집 「나는 뒤통수가 없다」를 발간한 지 6년 만에 그가 두 번째 시집 초고를 보내왔다.

첫 시집 작품해설에서 필자는 정영애 시인의 시적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볼록렌즈로 들여다보는 페미니스트적 작품이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설적이면서도 외설적이지 않은 성담론적 시적 모티브를 노래하는 과감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 본성이나 사회에 대한 반어와 풍자를 담아내는 블랙 유머가 돋보이는 시적 장치의 사용이었다.

두 번째 시집 「모래시계」 역시 페미니스트적 분위기와 망설임 없는 언어의 솔직 대담성, 사회를 향한 해학적 유머가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관념적이지 않고 문학성을 동반한 구체적 이미지가 독자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림으로 슬쩍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그의 작품을 하나하나 읽는 일은 즐겁다. 반짝이는 어휘들이 곳곳에서 툭툭 튀겨 나오고, 그 툭툭 튀는 단어들이 묘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시적 메시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기대되고 설레기까지 한다.

시가 작가의 품을 벗어나면 오롯이 독자의 것이 된다.

마치 한웅운 시에 나오는 ‘님’처럼 읽는 이에 따라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그리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벗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해설은 날카로운 입맛으로 작가의 가치관이나 작품

성을 날날이 맛보는 미식가의 허처럼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설을 위한 해설이 될 수도 있다.

문학은 소통이다. 정영애 시인의 시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소통 자체다. 자! 월트 휘트먼의 ‘오, 나여! 오, 삶이여!’에서 인용한 시인의 말처럼 ‘이것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답은 바로 이것.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삶이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그냥 시가 여기 있다는 것, 시인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족이기는 하지만 정영애 시인의 「모래시계」 덕분에 오랜만에 월트 휘트먼의 이름을 만난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월트 휘트먼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으로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 중 하나로 알려진 <O Captin! My Captin!>을 쓴 시인이다. 링컨을 애도하는 오래된 시였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다시 빛을 발했던 문장이다. 우리는 왜 시를 쓰는가? 로빈 윌리엄스가 명쾌하게 말한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시와 예술,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II. 어휘 하나에서 가져오는 상상의 힘

이은봉 시인은 시를 평할 때 ‘시의 핵심 모티프를 찾는 일은 작품의 싹을 틔운 씨앗을 찾는 일이다. 시의 씨앗을 찾는 과정에서 작품에 함유되어 있는 발상의 기발성, 참신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상상력의 전복성, 즉 역발상의 실제 등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시인의 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의 씨앗인 어휘 하나에서 가져오는 발상의 기발성에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뒤집어 버리는 역발상이 가히 압권이다.

객지에 사는 아들
몇 달 만에 집에 와
밤새 친구와 술 마시고
아침에 내려갔다

울화 한 다발 던져두고

-「꽃다발」 전문

오랜만에 다녀간 아들이 준 스트레스 울화(鬱火)를 꽃(花)다발로 비유하는 역발상은 정영애 시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시적 장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휘의 보편적 상상력을 다시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리는 ‘역발상’을 그녀의 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트에서 소시지 시식은 씹빡하다/ 중략
소시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요 염장 지르는 맛에/가끔 한 번

쫄 맛을 본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그 꼬드김에 덜컥 장바구니에 담았다/ 중략

연애할 때/ 조금씩 맛보던 남자의 마음과 눈빛은/ 나를 안달나게 했다/ 만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중략
남자와 남편을 묶은 원 플러스 원을 통째로 들였다// 졌다//
-「원 플러스 원」 부분

내 친구 동생 경자/ 착한 언니와 달리 어려서부터 / 소문난 꼴통이었다/ 성질은 또 얼마나 사나운지/ 쳐다만 봐도 시비 걸고/ 손끝만 닿아도 침 뱉고 할퀴 고 해서/ 우리는 몰래 경자년이라고 불렀다/ 경자만 나타나면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남자아이들도 슬금슬금 경자를 피했다/ 글도 모르면서 욕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특히면 지각 결석에다/ 아이들 돈이나 물건 훔치고/ 선생님들한테도 대들어/ 경자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불려 갔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버스 안내양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가발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느 향구 술집에서 보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한 번도 경자 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올해 경자년이 왔다/ 코로나를 몰고//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

-「경자년이 왔다」 전문

마트에서 만난 ‘오늘은 원 플러스 원/ 그 꼬드김에 덜컥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소시지와 ‘남자와 남편을 묶은 원 플러스 원을 통째로 들였다// 졌다//’처럼 ‘남자와 남편’을 ‘원 플러스 원’으로 대비시키는 발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 시작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어릴 적 모두가 무서워하고 기피 하던 친구 동생 ‘경자’로 환치시켜 ‘드디어 올해 경자년이 왔다/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로 중의적 표현을 끌어낸 서사적 기발성은 정영애 시인의 전매특허이다.

위에서 살펴본 몇 편의 시처럼 정영애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모래시계」에 담긴 시를 읽는 재미는 어휘 하나로 시작된 시인의 상상 속에 같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상의 세계에서 언어의 마법을 즐기는 일이다.

우리 짱으로 뭉쳤다/ 고래들이 싸울 때마다/ 우리의 등만 터지고/ 고래들은 멀쩡했다/ 그래서 터지고 굽은 등끼리/ 한 봉지씩 짱으로 뽕뽕하게 모였다/ 힘없는 우리를 심심풀이로 건드리면/ 바삭바삭 있는 힘을 다해 부스러질지언정/ 새우의 넋만은 짱다구로 지켜내다/ 작은 것들이 뭉쳤을 때/ 비로소 힘이 세진다는 것을 알았다/ 몸을 버리고 짱으로 거듭나보니/ 하/ 덩치 큰 고래가 우습게 보였다/ 고래는 겨우 밥일 뿐/ 일찌감치 우리는 짱으로 버텼으니//

- 「새우깡」 전문

엄마에게 그는 특별한 남자였다 엄마는 그 남자를 잘 다루었다
엄마의 기분에 따라 임연수라고 불렀다가 이맨수라고 불렀다가 이민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 -중략-

엄마에게 있어 남자는 시인이고 가수이며 잘생긴 배우였다
하지만 엄마의 이 비린 사랑도 길지는 못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엄마는 칼처럼 이 남자를 버렸다 아버지와 이 남자를 동시에 사랑했던
엄마 어쩌다 사람 이름을 얻어 망망한 바다에 호적을 둔 임연수 씨//
매정하게 돌아선 엄마가 그리지 않나요?//

- 「엄마의 남자」 부분

작품해설을 위해 본인의 작품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메일로 온 정영애 시인의 작품 배경을 읽다 그만 ‘뽕’ 터졌다. 두 번째 시집에서 필자가 가장 절창이라고 생각한 ‘새우깡’의 작품 배경이다. 시인이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딸 소정이가 새우깡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아작아작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쓴 시.

소설가 이광식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칭찬하던 시. 새우와 고래의 비유가 현 사회를 해학적으로 절묘하게 나타냄.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가볍게 끄적거린 시인데 갑자기 덩치가 커져 버린 느낌이었음.”

그냥 ‘새우깡’ 과자 하나에서 출발 된 상상력이 다른 과자 ‘고래밥’을 불러내고, 그 새우와 고래가 ‘깡’과 ‘밥’으로 대변되는 서민의 삶을 소환하는 시적 서사와 남편이 먹고 싶다는 생선 ‘이먼수’를 처음 보고, ‘임연수어’라는 사람 이름과의 관계성을 상상해서 ‘엄마의 남자’로 환치시키는 발칙한 상상력을 필자는 절대 갖지 못한다.

오늘은 작은 암자 같은 이 절에 든다/ 스님 없는 이 절은/ 보살이 절이고/ 절이 보살이다/ 무명의 가사 한 벌 없는 절에/
세상의 묵은 때 두껍게 입은 나를 온전히 말긴다/ 중략
보잘것없는 몸통이에 동백꽃 피었으니/ 잠시 합장하고 싶은 마음 누르고/ 때 민 돈 세신사에 봉양하고 나온다//

- 「세신사」 부분

내 영혼의 무게는 담배 한 갑 정도/ 손끝에서 사라지는 / 연기보다 가벼운 부재/ 중략/ 21g/ 딱 한 번 내쉬는 한숨의 무게로/ 불량한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눈금 서너 개 더 지워졌을/ 하략

- 「21g」 부분

새해 아침/ 할머니께 받은 딸아이의 세뱃돈/ 저금해 준다고/ 살살 어르고 꼬드겨 달콤하게 빼앗았다/ 쫓쫓 혀를 차는 / 사임당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꼭꼭 접어/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깜빡하고 세탁기로 돌렸다/ 뽕뽕하게

마른 청바지를 입는데/ 오만 원 권 한 장/ 호주머니 속 접힌 채 그대로다/ 섬유 린스 피존의 향기까지 뿜으며/ 새 돈으로 세탁되었으니// 이제 이 돈은 내거다//

- 「돈세탁」 전문

목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때를 밀며 ‘세신사(?)’라는 절 이야기를 하고, 평생 피워온 남자들도 잘 모르는 담배의 무게 ‘21g’을 영혼의 무게로 끌어내 언젠가는 콩초처럼 소멸될 줄 알면서도 ‘내가 나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우리들을 불러낸다.

일상에서 어쩌다 겪는 세탁과정에서 현 사회의 커다란 부조리 검은 ‘돈세탁’ 이야기를 순진한 딸의 세뱃돈을 꼬드겨 세탁기에 돌린 다음 ‘이제 이 돈은 내 거다’로 시침 똑 떼는 유머와 농정의 힘은 단순하면서도 늘 대단하다.

이는 정영애 시인에게 내재 되어 있는 상상과 역발상의 힘이다.

III. 언어를 지적 유희로 만드는 시적 장치

츰스키(Noam Avram Chomsky)는 인간은 고유한 자기 언어를 습득하는 언어획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LAD)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몸에 장기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인간의 기관 어디에도 언어 획득을 관장하는 부위는 없지만, 인간은 어려서부터 모국어의 음소를 습득하면서 한 단어에서 여러 단어의 복합 변형까지 언어를 생성하고 발달시켜 나간다고 한다.

정영애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츰스키가 말하는 ‘언어습득 장치(LAD)’가 다른 이에 비해 잘 발달 된 시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언어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습득으로 체화된 언어가 결국은 발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영애 시인은 시 안에서 그만의 특화된 발화체계를 가지고 있다.

회복은 다시 입는 옷/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 한 번쯤 몸의 바깥으로 나가 봐야 한다 / 참을 수 없는 통증의 막판까지 내려가 / 내가 모르는 나를 들여다보는 일

어느새 사람을 벗고 환자복으로 누운 병상/ 신음마저 그렇 그렇할 때 / 당신의 위로는 잠깐 피어났다 시드는 꽃잎/ 꽃잎을 물고 내뱉는 기도는 절실한 거짓말// 몇 번의 아침이 회전을 돌던 어느 날 / 잠든 통증을 환자복 속에 벗어놓고/ 비로소 병원 유리문을 열고 나오면/ 성당을 지나 어느 때의 출근길 같은 거리 / 환자에서 사람으로 건너가는 회복을 입고/ 돌아보니 몸의 안 쪽 까지 환하다// 수없이 삼킨 알약으로 만든 옷/ 한 방울 한 방울 링거의 눈물로 지은 옷/ 살을 버리는 아픔의 무늬로 짠 옷/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돌아오는 순한 시간을 위해 / 어쩌면 신이 마련해 놓은 옷/ 무엇보다 옷장엔 없지만 / 다시 돌아온 옷// 회복!//

- 「회복」 전문

아픈 몸이 다시 좋아지는 회복(回復)을 웃을 갈아 입는 회복(回復)으로 연결시켜 '내가 모르는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고, '환자에서 사람으로 건너 가는' 일이며, '무엇보다 옷장엔 없지만, 다시 돌아온 옷, 회복!'을 읽는 일은 즐거움이다.

다른 이의 글을 읽는 이유가 '정보와 지식의 공유', '감동과 공감', '메시지 공유' 등에 있지만, 유려하고 찰진 비유로 이루어진 '언어의 조합'을 찾아내는 '지적 유희'도 큰 몫을 차지한다.

길을 가다 / DANGER라고 쓴 잠바를 입은 남자의 등을 보았어/ 순간 '단 거'라고 읽고 말았어/ 저 남자 정말 달콤할까 / 빠른 걸음으로 그 남자를 앞질러 슬쩍 돌아 보았어/ 쇼트 커트에 이어폰을 낀 채 통화를 하는 / 젊은 여자였어/ 빨간색 자수로 수놓은 위험이 잘 어울리는 여자/ 그 때 알았어/ 그녀도 위험을 단 거로 생각했다는 거/ 위험은 필기체로 써야한다는 거/ 위험도 가까워서 보면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위험은 멀어지고/ 나는 햇살 쏟아지는 거리에 서서 DANGER를 우물거리며/ 저 멀리 흔들리는 플래카드 속의 *무지개를 보았어// *귀여의 상징

- 「DANGER」 전문

꽃들을 잃고 나는 쓰네/ 반성하라 아랫도리 역사를 외면하는 아베여/ 무궁화꽃 짓밟던 일본의 군화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조선의 소녀들 끌고 가서/ 공포에 몸을 떨던 꽃잎들 짓밟개고/ 망설임도 없이 쏟아 내던 더러운 배설물들/ 반성하라, 결코 너희 것이 아니었던 우리의 누이들께/ 아베 말이야, 사과는커녕 진실의 문을 잠그네/ 가엾은 조선의 소녀들// 오! 아베 마리아//

- 「아베 마리아」 전문

기차길 옆 / 오두막집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 「저출산은」 전문

위험하다. 'DANGER'를 '단 거'로 읽어내면서 '위험은 필기체로 써야한다는 거/ 위험도 가까워서 보면 웃을 수 있다는 거'라는 블랙 유머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끝내 인정하지 않는 '아베 말이야'를 '아베 마리아'로 표현하면서도 시가 전하려는 중심 메시지를 끝내 유지하는 시 쓰기는 때론 경외롭다. 저출산의 문제를 '기차길 옆 오두막집'으로 밀어내는 시적 장치는 또 얼마나 능청스러운가?

언어의 특성을 잘 살린 지적 유희와 작가의 메시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화를 만들어 내는 시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영애 시인의 시 읽기는 늘 즐겁다.

대부분의 시 작품은 제목에서 시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정영애 시인의 시 작품에서 여러 편이 이를 거부하는 시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아침 일찍 물이 끓었다/ 연못 같던 생각들도/ 한순간/ 몸 밖을 빠져나가고/ 하루가 밥알처럼 말라붙어/ 딱딱해져 가는 오전/ 물이 없는 하루를 / 나는 마른 걸레로 빈둥거렸다// 저녁/ 틀어 놓은 수도꼭지에서/ 막혔던 시간들이 쏟아지고/ 밀린 설거지를 하며/ 축축하게 젖어 들기 시작하는 시간/ 부엌 가득 쌀 씻는 소리 / 경전(經典)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시간처럼 흘려버리며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처럼 흘려버리며 살았는지// 나무아미타불//

- 「나무아미타불」 전문

내가 사랑했던 단어 몇 개/ 그 앞에 '첫'을 붙이면/ 갑자기 바뀐 화면처럼/ 내 생이 무음 처리된다/ 중략/ 첫사랑/ 첫발자국/ 첫날밤/ 첫 월급/ 첫아이// 중략

'첫'은 처음으로 내게로 와서/ 곧바로 마지막이 되었다/ 중략

나를 꼼짝달싹 못 하게 했던/ 생의 실수 같은 '첫'/ 맨 처음만 허락하는 부질없는 '첫'// 아름답고도 우라질//

- 「아름답고도 우라질!」 부분

내가 저것들을 놓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엄마한테 수없이 듣던 말/ 그럼 된장국 먹지 그랬어!// 그때마다 걸레나 밥숟가락이 날아올 때도 있었지만/ 엄마 마음은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했다// 내가 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엄마는 덩실 덩실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꼬박 한 달 내내/ 나도 수시로 아이들한테 하는 말/ 내가 저것들을 놓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웃기는 미역국/ 후회의 미역국// 미역국은 분명 전망중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 기형도의 <빈집> 패러디함

- 「즐거운 미역국」 전문

'마른걸레로 빈둥댄' 물 끓긴 오전을 지나고, '막혔던 시간들이 쏟아지고', '축축하게 젖어 들기 시작하는 시간'인 저녁. 쌀 씻는 소리를 '경전(經典)'으로 해석한 후 붙인 제목이 '나무아미타불'이다.

또한 '내가 사랑했던 단어 몇 개/ 그 앞에 '첫'을 붙이면' 모두가 아름다운 언어가 된다. 그러나 '나를 꼼짝달싹 못 하게 했던/ 생의 실수 같은 '첫'/ 맨 처음만 허락하는 부질없는 '첫' 때문에 '우라질'이 나온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아름답고도 우라질!'이다. '내가 저것들을 놓고 미역국을 먹었으니'라는 반후회적인 말을 부모에게 안 듣고 자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웃기는 미역국, 후회의 미역국'이라 노래하고 정작 시의 제목은 '즐거운 미역국'이다.

시의 제목을 가리고 이 시에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필자는 '단수', '첫이라는 글자', '후회의 미역국'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시적 어휘 사용을 통해 시 읽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작품을 정영애 시인의 작품에서는 자주 만난다.

전략// 세상에,/ 노을과 관계한 이 새로운 경험이라니/ 요실

금!// 나의 첫 경험은 대부분 허리 아래/ 나의 거기로부터 시작되니//

- 「첫 경험」 부분

퇴행성이라는 말/ 어쩐지 기분 나쁘네/ 중략 /앉았다 일어나는 밤하늘에서/ 아프게 부스러지는 별빛들/ 그래도 퇴행성이라는 말/ 기분 나빠/ 태행성이라는 우주별로 안고 걸어 가네//

- 「퇴행성 관절염」 부분

아시아에서 음식을 조리하며/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본다// 중략
식욕을 끓이고/ 웃음을 무치며/ 약자한 재료를 넣고 / 음식을 조리했던 나의 시간은/ 부조리였을까// 중략// 지구 건너편에서 밥 먹듯 굶고 있는/ 검은 대륙을 믿으며 손가락을 놓는다// 조리가 부조리로 식어가는 중이다//

- 「조리와 부조리 사이」 부분

순한 양이란 말은 낭설이죠/ 거칠고 방향 감각이 없어 자주 길을 잃었죠/ 중략//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양과 말은 서로를/ 조율하고 닮아가면서 / 나를 태우고 다니죠/ 오늘도 / 한 발은 양을 타고 또 한 발은 말을 타고 집을 나서죠/ 중략// 지친 양과 말이 빨래 바구니에서 돌아떨어지죠//

- 「양과 말」 부분

위의 시들을 살펴보자. ‘첫 경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리에게 젊은 시절의 그 ‘무엇’을 떠오르게 한다. 수줍고도 설레는 미지의 그 어떤 첫 문을 여는 현기증을 떠올리게 된다. 정영애 시인은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신체 노화에 의한 질병인 요실금도 ‘세상에, 노들과 관계한 이 새로운 경험이라니’ 하면서 ‘첫 경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퇴행성’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태행성’이라는 새로운 별 이름을 아픈 무릎에 받아들여 무릎의 통증을 부스러지는 별빛으로 뿌리고 있다. 시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럽다. 요즘 티브이에는 채널마다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넘치고 찬다.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수고로움과 감사함은 뒤로 하고 자극적이고 오락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씁쓸하다. 시인은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를 티브이를 통해 만난다. 음식을 조리(調理)하면서 아프리카의 빈곤을 생각하며 부조리(不條理)라는 단어를 대비시킨다. 조리(調理)가 어찌면 부조리(不條理)가 아닐까 질문하는 작가의 마음에 공감한다. 발에 신는 ‘양말’이라는 단어를 ‘양’과 ‘말’이라는 동물로 환치시키는 조어 능력은 그리 쉽게 표출될 수 있는 시적 장치가 아니다. 이런 어휘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과정을 필자는 정영애 시인의 작품에서 빛나는 언어가 주는 ‘지적 유희’라 이름 짓는다.

IV. 발은 땅 위에, 머리는 구름 위에 둔 시인

정영애 시인은 다재다능하다. 흥이 많은 시인이며, 시를 제대로 된 소리로 표현하는 낭송가이기도 하다. 몇 년 전 강릉으로 이사 가면서 전업주부에서 카페 사장님으로 직업을 가졌다. 방목에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 시집에는 그렇게 스스로 걸어 들어간 우리 안의 답답함이 매일 접하는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스며 내렸다.

한 번쯤/ 양지다방 같은 곳에 앉아/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아메리카노로 물 든/ 쓸데없는 입맛 잠시 접어 두고/ 양지바른 곳에 핀 영산홍 같은/ 다방 아가씨가 날라 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들고/ 오래전의 나를 불러내 보고 싶다//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열병으로/ 날마다 불투명한 약속을 만지작거리던/ 환절기 같은 연애/ 늘 먼저 달려가 기다리던 다방/ 커피는 식어가고/ 환장하게 지루한 봄날보다/ 오며 가며 켜려보던/ 레지 아가씨의 진분홍 짧은 치마가/ 더 아슬아슬해서/ 안절부절못했던 기다림// 살아보니 / 사랑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개빠다귀/ 무릎에 파스 붙이며 구시렁거리고 있는/ 낯은 여자//

- 「다방 커피」 전문

카페로 들어온 젊은 여자/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본다/ 오늘 드립은 뭐예요?/ 에스프레소는 원샷이예요? 투 샷이예요?/ 카페모카에 생크림 올라가요?/ 중략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젊은 시절/ 무수히 많은 메뉴판 같은 길을 놓고/ 갈팡질팡했다/ 마셔보지 못한 커피의 이름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의 맛이 궁금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결국/ 뜨겁고 양도 많으면서 오래 마시는 잔을 골랐다/ 아직도 마시고 있는/ 다 식은 아메리카노/ 결혼!//

- 「그냥, 아메리카노」 부분

한 잔의 암호// 몰래 하는 키스처럼/ 깊고 빠르게/ 어두운 욕망으로 번지는/ 혀끝의 파멸/ 한순간 돌아선 너를 찾아 헤매던/ 막다른 골목 같은// 한 모금의 퍼포먼스/ 한 잔의 어떤 질문/ 영원히 풀 수 없는 검은 허구//

- 「에스프레소」 전문

정영애 시인은 「다방 커피」에서 ‘낯은 여자’ 이전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다방과 다방아가씨 혹은 레지라고 불렀던 그 아가씨들을 우리 앞에 불러내 잊고 있던 흑백의 그림을 던져주며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마시고 있는/ 다 식은 아메리카노/ 결혼!//’의 「그냥, 아메리카노」에서는 결혼을 아직도 마시고 있다는 식은 아메리카노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에스프레소」에서는 ‘한 잔의 어떤 질문’이자, ‘영원히 풀 수 없는 검은 허구’이다.

즉 정영애 시인이 생활로 내리는 저 커피 한 잔은 ‘간힘과 풀림’에 대한 갈등이다.

너의 뚜껑으로 산다는 거 / 나는 한 번도 그 무엇을 담을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과 한통속이 되어 / 골 빈 여자
처럼/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거//

- 「뚜껑론」 부분

그 갈등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뚜껑’이 아닐
까? 라는 회의에 이른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려/ 돌아갈 수가 없어/ 생의 표지판 한
장 없이 여기까지 온 내게 / 돌아가라니 / 연말이 되면 내 안
에서도 부실 공사 다시 하느라 / 너무 위태로운데 / 언제 무
너질지 모르는 금 간 나를 부추기다니/ 공사가 위험한 게 아
니라 그냥 내가 위험 표지판이다//

- 「위험 표지판」 부분

그리고 그 회의감은 ‘그냥 내가 위험 표지판이다’라는 자각에 이
른다

총알 없는 / 권총 한 자루 같은/ 일상들/ 하루 / 한 달 / 일 년
--// 시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넌 괜찮아?/ 녹슨 일상 몇
개 장전하여/ 나를 향해 쏜다/ 탕! 탕! 탕!//

- 「권태」 전문

그 자각은 한도를 넘어 간혀 있는 권태로운 우리들 모두의 일상을
향해 ‘탕! 탕!’ 총을 뽑아 든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저서
에는 인간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가 가치를 상실하게 되
고,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약동하기까지의 공백을 권태라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생물이 노력하는 양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그 후엔 기나긴 권태와 또
다시 약간의 만족을 위한 기나긴 고난을 행하기 때문에 생의 욕망
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계속해서 고뇌의 사이클에 가둬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
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허무주의적인 가
치관을 세우기도 했다.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
다 / 웃기는 세상/ 이제 시 쓴다고 밤늦게까지 앉아/ 신 밥치
럼 하품하는 일 따위 안 할 거야// 나 다시 태어나면 몇 번이
고 세숫대야 같이되어/ 뻔뻔한 마네킹 같은 면상 튀기면서/
겹대자리 없이 살아볼 거야.// 이모, 여기 처음처럼 한 병 추
가요/ 딸꾹//

- 「술 취한 날」 부분

「술 취한 날」은 술 한잔에 용기를 내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하지
않고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야유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 거라고
술의 힘을 빌어 큰소리 친다. 그러나 그 용기는 그냥 취기일 뿐 처
음처럼 한 병을 추가하며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처음의 시인으로
돌아간다.

남루한 생을 짊어진 나의 등을 생각한다/ 서로 볼 수 없는
숙명으로/ 나를 다독이며 묵묵히 뒤에서 같이 걸어왔을 등/
처음으로/ 등에 어울리는 옷 한 벌 사 입혀야겠다//

- 「등」 부분

취기가 깬 아침,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등에 어울리는 옷
한 벌’ 사 입히는 것으로 타협된다.

나 역시 ‘적당히’와 야합해서/ 한 생을 적당히 살아가고 있
었으니//

- 「적당히」 부분

그리고 다시 적당히와 야합하면서 적당히와 야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적당히라는 편리한 저울에 올려 놓는다.

사랑 하나로 먹고사는 줄 알았지 /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에 / 흥,
코웃음 치며/ 무덤 속으로 냉큼 들어갔지/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
뜨거운 전쟁터였지/ 중략

내가 판 무덤에 / 내 스스로 갇힌 걸 알지 / 벗어나고 싶어도 / 무덤
을 담은 만한/ 큰 여행 가방을 구하지 못해/ 오늘도 몰래 가방을 만
드는 중이지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준 남자’ 문정희 시인의 ‘남
편’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이다. 결혼은 무덤이고 뜨거운 전쟁터
지만 시인은 결코 그곳을 벗어나려 생각이 없다. 무덤과 전쟁터를 담
을 만한 가방이 있거나 할까? 몰래 가방을 만드는 중이라고 엄살을
떨며 쉽게 이혼하는 사회가 된 지금, 이혼보다는 우리 모두 같이 큰
가방을 만들자고 은근히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영애 시인은 발목을 잡은 ‘땅’에서 놀고 싶은 ‘구
름 위’를 향해 ‘오늘도 몰래 가방을 만드는 중’이다.

V. 나가는 말

평론가 정준영은 시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를 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어려운 일이다. 문장들 속에서 시인
의 절실함(혹은 영혼)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를 볼 때는
대립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별을 넘어 따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작품 속에 있는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정신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진실성)를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목할만한
인격체의 드러남이 있는가(유일성)를 봐야 할 것이고, 대중성으로
부터 얼마나 탈피했는가(비대중성)를 생각해 보는 동시에 대중과

의 친숙함은 어느 정도인가(대중성), 그리고 멀리는 작품의 유산적 가치(보편성)까지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작품이 주는 미적인 측면에서 언어적 형상화의 능력(표현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준영 평론가의 말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이의 작품을 살펴볼 때 시사 하는 바가 많아 인용해 보았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정영애 시인의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어적 형상화 능력(표현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영애 시인의 많은 작품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생선처럼 팔딱팔딱 튀어 오르는 시어들을 많이 만난다.

하나의 어휘에서 출발 된 시인의 상상력은 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통 튀다. 그러면서도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시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영애 시인의 시를 만나는 일은 늘 즐겁다.

끝으로 시인이 내게 보낸 시 「에스프레소」에 대한 작품 설명으로 작품해설을 마친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어로 ‘빠르다’ ‘신속하다’라는 뜻이다. 현대는 방향보다 속도로 살아간다. 속도는 무한한 욕망을 쫓는다. 욕망의 끝은 대부분 파멸로 치닫지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에스프레소로 살아간다.

좋은 커피에는 많은 조건과 요소가 있다. 아로마는 향기, 바디감은 입 안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의 묵직한 무게감, 산미는 과일의 신맛 같은 기분 좋은 맛이며 풍미는 저녁노을 그림자처럼 길게 여운으로 남는 미묘한 맛을 말한다.

우리의 삶도 분명 커피처럼 향기와 풍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군중들 속에 떠밀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한 잔의 암호, 영원히 풀 수 없는 검은 허구를 쫓으며.” 문득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이 생각난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김 종 헌

등단 : 2001년 문학마을 시 등단

저서 : 시집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칼럼집 : 『생각을 바꾸다』

활동 : 설악문우회(갈매 동인), 속초문인협회 고문, 강원문인협회 이사, 속초문화관광재단 비상임 이사, 속초예총 고문



속초사자놀이 이해에 대한 소고¹⁾

김 청 익

-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 속초사자놀이보존회 대외협력국장²⁾



1. 들어가며

속초사자놀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속초에 대한 역사 지리적 특징과 실향민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사자놀이에 대한 민속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속초라는 지역에 이북지역인 함경도 문화가 유입되고 그것이 7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속초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속초사자놀이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자들이 속초사자놀이에 대해 연구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속초사자놀이의 기원인 북청사자놀음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한다. 탈춤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따른 사자놀음의 유형과 의미들을 해석하였고, 실향민문화로서 속초사자놀이의 역할과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속초사자놀이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속초사자놀이의 기원인 북청사자놀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지역을 본거지로 한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사자놀음으로 마을 공동체에 의해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벽사의 의미가 있는 사자





를 탈로 만들어 쓰고 마을 곳곳을 돌며 각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통소를 중심 반주악기로 사용하며 북, 장구, 징 타악 반주가 함께한다. 양반과 격쇠가 놀이의 진행을 담당한다. 춤으로는 사자춤과 애원성춤, 넛두리춤, 갈춤, 사당춤, 무동춤, 곱추춤이 있고, 애원성을 비롯한 돈돌라리, 농부가, 청사초롱 등의 함경도민요 여러곡을 부르기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자료인 석남 송석하 선생의 1936년 2월 7일 현지조사 자료에서 북청사자놀음에 대한 사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8월 월남한 북청 실향민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발족하였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가 되었다. 1970년 사자앞머리 기예능보유자 제84호로 당시 속초에 거주하던 김수석 옹이 지정되었다.

김수석을 중심으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의 전승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명맥이 끊기는 조짐이 보였다. 그러던 중 1982년 김수석은 속초지역 대학인 동우전문대 학생들을 지도하여 축제 때 공연하였고 그 해 9월 설악동에서 가을맞이 새마을 대예술제를 마지막으로 전승활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80년대 중후반에 속초에서 공연된 사자놀음은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공연한 것들이다.

3기는 사자놀음에 대한 조사연구의 시작점이다.

1991년부터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는데 강릉원주대 명예교수인 장정룡은 1991년 당시 북청사자놀음의 기능보유자인 김수석(1907~1997), 김하륜(1914~2008) 옹을 심층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남겼고, 월남 이후 최초 제작된 북청사자탈을 김하륜 옹의 집에서 찾아내 사자탈의 원형 복원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4기는 사자놀음을 복원하는 시기이다.

2005년부터는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사자놀음 복원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청호동 출신의 실향민 2세인 장정룡 교수의 전승실태 조사와 더불어 실향민 2세대로 구성된 함경남도청년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예능인, 주민들이 모여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이 때 함경남도청년회로 참여한 김성하는 현재 속초사자놀이보존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사자놀이의 전승과 보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결혼과 함께 속초에 정착한 필자는 이 시기에 사자놀음을 접하고 이때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자놀음의 기능을 익히고, 정월대보름 전날 속초중앙시장과 청호동 곳곳에서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집돌이를 진행하는가 하면,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강원민속예술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자놀음의 예술적 평가와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의 각종 축제

2. 속초사자놀이 활동의 시기적 분류

속초에서 활동한 사자놀이에 대한 이해 방법으로 시기에 따른 구분을 해보고자 한다. 전승과 활동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 속초사자놀이의 위상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다.

1기는 속초에서의 초연이다.

속초에서는 사자앞채의 기능을 가진 김수석 옹과 통소연주 명인인 김하륜 옹을 중심으로 함경남도 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연행했던 실향민을 중심으로 1957년에 처음 행해졌다. 당시 연회에는 사자(김수석, 오동술), 양반(이종욱), 꼭쇠(양계건), 사당춤(박씨), 의원(장남우), 승무(김봉수), 총각(김원사), 곱추(마유득), 도깨비(김호환), 중국인(이종호)이 참여하였고, 악사로는 통소(변무성, 박진환, 이재섭, 김하륜), 북(마방석), 징(이종준), 장구(신겸)이 참여하였다. 1957년 연회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연회된 북청사자놀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2기는 자체적인 전승 노력을 했던 시기이다.



에 길놀이, 퍼레이드, 무대공연 등으로 참여하며 지역민들에게 사자놀음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하게 된다.

5기는 사자놀음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는 시기이다.

2013년 속초 실향민 2세들과 지역 예능인, 일반 시민이 모여 '속초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결성한다. 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청사자놀음'을 '속초'에서 보존·전승하기 위한 성격의 단체이다. 보존회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청호동을 중심으로 집돌이를 진행하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활동을 지속한다. 청호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병행하여 사자놀음의 대중화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보존회는 실향민 1세대이면서 1957년 북청사자놀음 초연의 기억을 가지고있는 변경일, 김철섭, 김진국 등을 고문으로 모시고, 당시의 사자놀음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서울의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한국전쟁 이전 북청에서 이루어진 사자놀음을 원형으로 한다면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는 1957년 속초에서의 초연을 원형으로 삼고있는 것이다. 이후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의 이름을 '속초사자놀음보존회'로 바꾸게 되는데, 전승주체인 실향민들의 인식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속초에 살고있는 북청 사람(실향민 1세대)에서 그냥 속초 사람(실향민 2세대)으로 변화된 것의 반영인 셈이다.

6기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기점으로 할 수 있다.

속초사자놀이는 속초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연희로서 2019년 3월 8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우선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속초사자놀음'에서 '속초사자놀이'로 변경되었다. '놀음'과 '놀이'의 사전적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놀음'이 연희적 성격(마치 무대 공연하 된)이 강하다면, '놀이'는 유희적 성격(집돌이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형식이 강조된)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보존회의 활동은 문화재 지정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술세미나를 통해 속초사자놀이가 보존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보존회 발족식을 겸한 마을 잔치를 열어 속초사자놀이의 공식적인 첫 발걸음을 떼었고, 청호동에 전수관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사무업무의 처리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재청 지원사업인 생생문화재의 주관단체가 되어 속초의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 작업도 하고 있으며, 국내 탈춤 문화재 보유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고 있다.

7기는 지금부터 다가올 미래의 시기이다.

2022년 11월 유네스코 회의를 통해 한국의 탈춤(국가 13종, 시도 5종)이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속초사자놀이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에 속초사자놀이의 발전적 전망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속초시의 다양한(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한다. 국제 교류를 해야 한다.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해야 한다.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상설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회원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등등 모두가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통문화를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전통문화를 대하는 가치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전통문화를 공급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고향에 대한 향수→고리타분→생경→무관심). 전통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공동체적 참여→직접관람→영상 시청→숏폼). 전통문화를 연희하는 동기의 변화(공동체적 참여→의무와 책임감→직업적 생계형 참여).이러한 가치의 변화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유연하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가며

속초사자놀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호재를 기회로 속초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보존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층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속초사자놀이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심과 지원은 속초사자놀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다. 속초사자놀이를 잘 알리도록 보존회도 더욱 노력하겠지만,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애정어린 마음을 기다리며 글을 마친다.

1) 2022년 12월 발행한 《속초사자놀이와 실향민문화》(장정룡, 김경남, 배은석, 김인섭, 엄경선)의 내용과 필자가 15년 동안 연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속초사자놀이에 대해 짧게 정리했다.

2) 속초사자놀이 양반역으로 15년 연희.



갈전의 보물창고

A treasure house of Galjeon Village

고명녀

- 사진가

- 사진 작가협회 부지부장



037

오래된 헛간의 문을 열고자 한다.

헛간 속의 물건들은 모두 세월의 무게를 버거워하며 삭아가고 있고 술한 전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래도 그 옛 집기들이 먼지가 되어 완전히 날아가기 전까지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생명의 숨결을 전하고 싶어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한 점 한 점 카메라에 담으며 무엇에, 어떻게, 쓰였던 물건인지 그 시간 속에 머물 때면 먼 과거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작업을 하다 보면 때론 옆에서 누군가 조곤조곤 속삭이며 사연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늦게나마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세간에 내놓아 달라는 조상님들의 바람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레 집기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사진 작업에 몰입해온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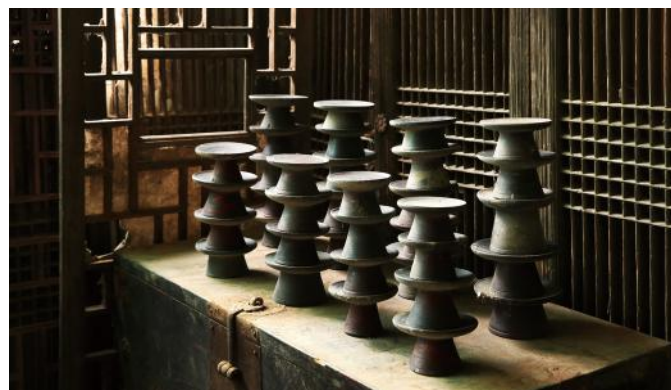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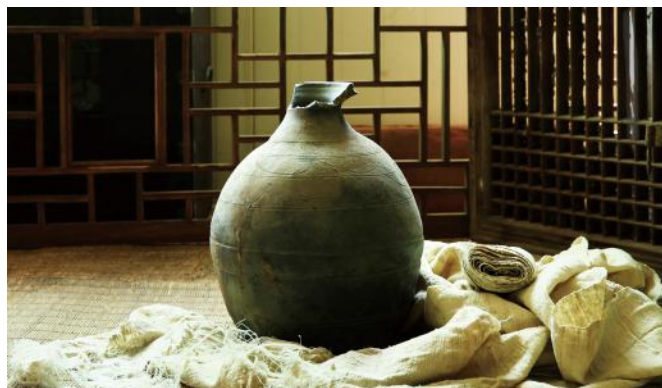
물건마다 세월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양한 색이 속속 배어 있는 것이 너무도 신비스러워 카메라 셔터를 정신없이 눌렀고 난 이 행복한 사진작업을 즐겨 왔다. 한때는 소중하고 귀하게 쓰였던 시절이 있었노라고 어깨를 으쓱대는 것도 같고, 숨겨진 비밀스런 사연을 들려주겠노라며 나를 유혹하는 것도 같았다. 만지면 부서질지도 모를 집기들이었지만 세월의 바람을 견디어 온 강인함이 배어 있음을 느낄 때는 경건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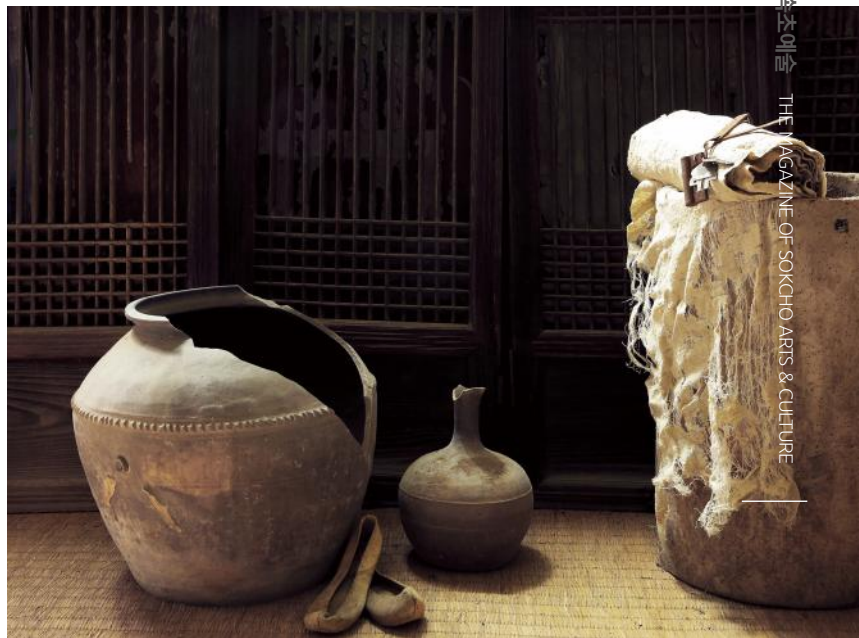
이 작업이 단순한 기록 작업이었다면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스며있는 정서에 잠자고 있는 색감을 보았고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숨결의 느낌 때문이었다, 점점 예술적 상상력이 신나게 피어났고, 물체의 혼이 꿈틀대는 담채색의 향연은 나의 열정을 덥혔다. 연륜을 품고 있는 풍부한 색감을 이미 경험한 이상, 때때로 게으름을 피울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출 수 없는 즐거운 작업이었다.

간혹 나태해질 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을 이해시키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가문의 친지들과 후손들에게는 집안 조상들의 소박하고 정성 가득했던 일상과 한때 눈부시게 영광스러웠던 조상의 역사를 전한다는 26대 종손 며느리로서의 책무로 스스로를 담금질해 왔던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보물창고의 문을 열었다. 강원도 갈전이라는 산촌마을, 낡은 창고에 쌓여서 자칫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전통 집기들이 세상에 나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다. 많은 사연을 품고 먼지를 덮어쓴 채 있었던 집기들의 숨결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느꼈던 것처럼 가슴속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사진가 고명녀







040



설악문화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다.’

2022년 8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장으로 인준받으며 ‘시민들과 연예예술인협회가 함께할 행사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있었다. 마침 제57회 설악문화제에 참여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어, 설악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회원들과 협의 결과, 속초시민가요제 ‘나도 가수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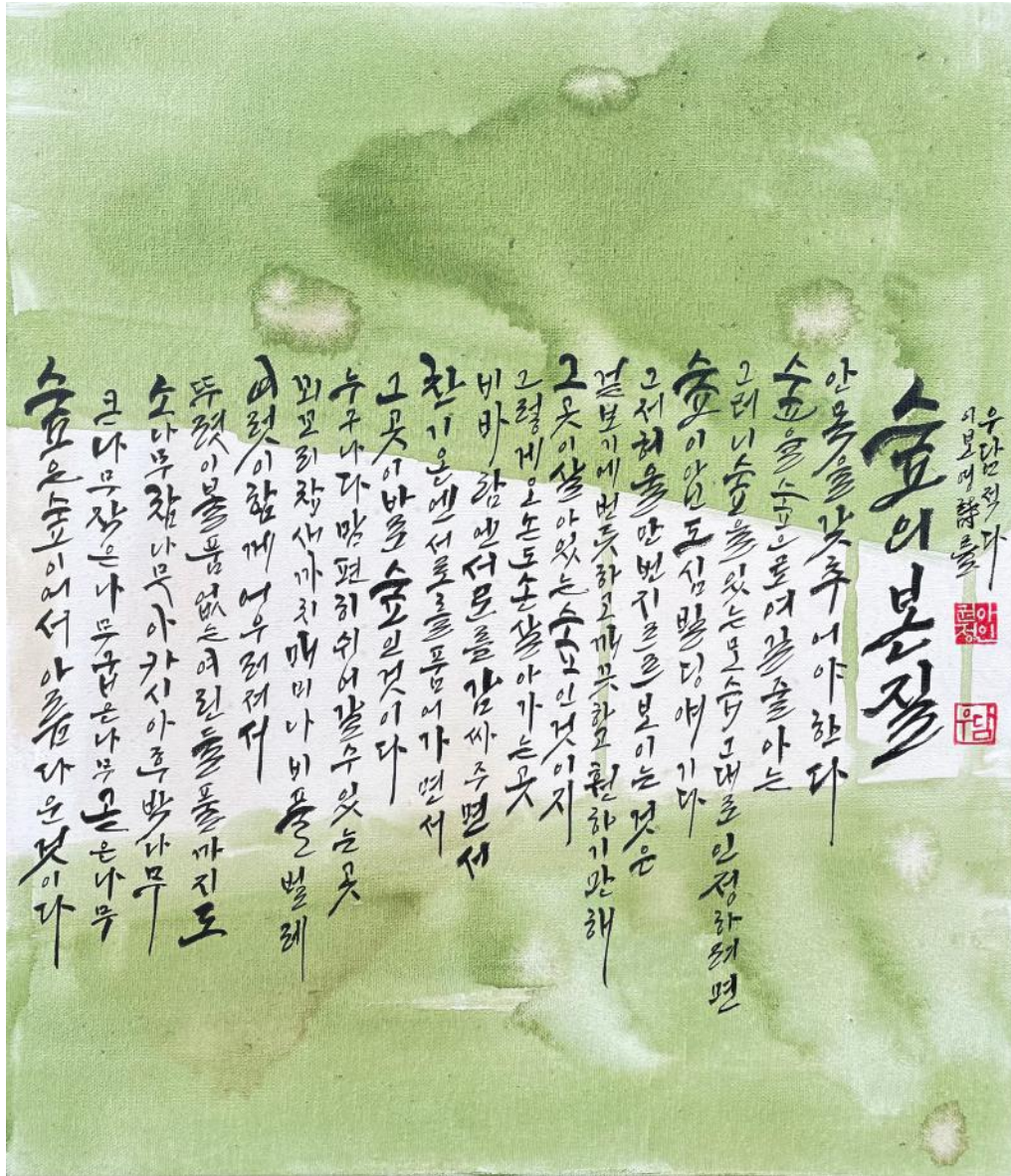


박재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부장

제목 그대로 가요 경연대회인 '나도 가수다'는 속초시민 및 설악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경연, 축하공연, 상장과 상금 지급하는 순으로 행사를 구성. 50여 팀의 참가자를 맞아 9월 29일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아트홀에서 예선을 진행하여 본선 12팀을 선정. 연예예술인협회 소속 예술인들이 밴드로 참여하여 참가곡들을 모두 편곡하였다. 본선은 10월 8일 설악문화제 메인무대에서 열렸다. 본선 12개 팀이 밴드와 함께 경연을 시작으로 지역가수 김현미님과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김도향님이 축하공연을, 그 사이 심사를 거쳐 4개 등위 총 다섯 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참가자와 가족,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행사였고, 참가자들의 넘치는 끼를 보며 내년에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2023년 설악문화제의 계절이 왔다. 작년과 똑같은 행사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며, 회원들과 궁리. 가요, 댄스, 연주 등 모든 예술 장르를 경연하는 행사를 만들자고 협의 끝에, 속초시민열전 '나도 설악 스타'라는 제목의 경연대회를 만들었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더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19팀만 접수했다. 하지만 가요부터 민요, 댄스,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9월 24일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예선을 진행. 예선을 이겨낸 12팀은 10월 7일 제58회 설악문화제 메인무대에서 가족들과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끼를 선보였다. 올해 초대가수는 지역가수 김진우님, '상사화' 등을 부른 트로트 가수 황진이님이 참여하여 객석을 들쭉이게 했다. 올해는 상위 4개 팀에겐 상장과 상금을, 그리고 참가한 모든 팀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행사 기획, 진행, 마무리까지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경연팀과 관객들의 모습, 지역과 소통하는 속초연예예술인협회를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는 여러 이유로 지역에서 활동이 적었다. 현재 우리는 지역민과의 만남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비록 작은 보폭이지만 한발 두발 걸어 지역의 공연문화가 나아가길 노력할 것이다. 2년 간 본 행사에 함께해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숲의 본질

53.0 x 45.5cm (10호)

Mix media on canvas (2023)

작품을 쓰면서 항상 글자의 전체적인 흐름과 강약을 주며,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글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풀어내느냐를 항상 고민한다.

숲에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삶에 빚대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념을 다시 되짚어 보게끔 하는 내용의 시를 작품으로 옮겨 보았다. 숲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green을 배경으로 칠하였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숲'자를 매번 다르게 표현해보려고 했다.

숲의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강한 글씨, 기울어져 있는 글씨, 끊어서 쓴 글씨, 흘러서 연결하여 쓴 글씨들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프레임 구성하였다.



권정아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 전공
강원미술대전 특선
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현) 강원서예과총연합회 부회장

권금성 단풍

35 × 70cm

화선지에 먹, 안료 (2021)

權金城의 丹楓(권금성의 단풍)

작자-미상,

嶽是非楓樹是楓(악시비풍수시풍)

周圍四面石城紅(주위사면석성홍)

停車時有穿林客(정차시유천림객)

題句誰呼採葉童(제구유호채엽동)

本色移來燕水上(본색이래연수상)

淡粧分得漢階東(담장분득한개동)

亭亭不變凌霜態(정정불변능상태)

桃李春光豈與同(도리춘광기여동)



043



혜풍 김광희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심사 3회 역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본전시 및 특별전 초대출품(9회)

대한민국 운곡 서예, 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4회 역임

강원도서예상, 속초시문화상(문화예술부문)수상, 세계평화예술 대상 수상

미술, 서예지도표창 20회 수상(주한인도대사, 내무부장관, 홍익대학교미술대학장 외)

주 독일 한국대사관 초대전(독일 베를린) 초대출품

FOUR NATIONS SECON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헝가리 Debrecen)

한, 중, 일 3국 서예명가초대전(일본 도쿄대학교)

한국대표단체 초대작가 초청전 한국예술창작 대상 수상

<역임> 강원연목회장, 강원도서예가협회장, 한국미협 강원도부지회장 외 다수

<현재> (사)아시안캘리그래피협회 이사, 대한민국의학원연합회서예분과 이사, 혜풍문자조형연구소장

반야바라밀다심경

35 x 140cm
화선지에 먹 (2023)

대승불교 반야사상 (般若思想)
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경으로 그 뜻은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

唐訶般若波羅蜜多心經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意識界無盡明亦無盡明盡乃至盡老死亦盡老死盡苦集滅道盡智亦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呪是無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苦真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說呪曰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提娑婆訶

松坡金鼎斗



김만두

중국 산둥성 요성시, 제남시 서화교류 추진위원장
한중 제 6회 서화교류임명장(산둥성 문화예술연합회)
한중 제 7회 서화교류임명장(산둥성 양산문화예술연합회)
중국 서법가 명예작가 (중국산둥성 문화연합회)
중국 산둥성 문연공모전 심사위원 제남시, 고당초대전장휘호.
동아국제미술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이사.
동아예술협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이사.
한국서가협회 강원지회 속초지부장.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이사.
한국추사학회연구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내면의 안

53 x 72.7cm
Mixed media 202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나는 그 꽃이 초라한 길모퉁이에 꽃을 피우며 초라하다고, 버겁다고, 꽃 피우기를 멈출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조금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숭고한 섭리에 순응하려 그렇게 피고 지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시선으로 꽃을 확대 재해석하여 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켜가고 있다.



루다 김(영미)

개인전 2회

2023 HIGHLIGHT(청주 예술의 전당)

2023 bac 속초아트페어(속초 칠성조선소)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올리 개관 초대전(속초)

2022 서울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21 힘내라 대한민국 미술로 하나되다(한국미술관, 서울)

Good Morning 2020~2022Art Collection(갤러리라메르, 서울)

2019 Korean Contemporary Art Festival Moskva. 국제작은미술제(LWAF)France

2021 대한민국열린미술대전 대회장상, 2019 강원미술대전 특선 등 단체전 및 수상경력 다수

한국미술협회, 한국창조미술협회, 한국보태니컬아트협회 회원 및 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작나무 숲

40P (99.5 x 72.5)
Acrylic/2023년

자작나무는 계절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봄과 여름은 주변의 풀과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치고 가을 자작나무는 식물의 무르익음으로 흰 자작 나무의 색이 주변의 알록달록함을 돋보이게 한다. 겨울에는 흰 눈과 함께 하늘의 여백이 멋스럽다. 오늘은 아크릴 물감으로 가을 자작 나무 숲을 물들여 나의 추억을 소환해 본다.



박혜정

소향 박혜정
청주대학교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6회(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외)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전 다수/강원도 미술협회전다수/한국 미술협회전다수
사랑나눔자선미술전다수/속초산악박물관 개관기념전/강원 아트페어전/예술과이음전/작품마음 나누다전
색채의향연전/통영바다미술전/국제온라인미술교류전/중국훈춘시교류전/운세아트센터 개관기념전
리수갤러리 개관기념전/속초시립박물관 작가초대전 /국제온라인 미술교류전등
제7회 동아국제미술대전 입선/제8회 동아예술대전 입선
2019년 강원미술대전 입선/2020년 강원미술대전 특선
2023년 한류미술대전 전국 공모전 입선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서양화분과 위원장
현 한국예술인 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회 수석부회장
현 달출문 협동조합 이사/박혜정화실 운영/수채화외부강사



영혼과 환상의 은하수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볼수있다는 4곳중에 울산바위가 있다.
은하수 별빛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소망과 영혼의 황홀함을본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우주를 품다

50호M
water color on paper

047



이설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수상수여 초대작가
강원미술대전 서예대전 초대작가
님의침묵 서예대전 최우수상 초대작가
한국캘리그래피창작대전 초대작가
캘리마스터,우리그림마스터
한국미술협회 회원,각종전시참여 300여회
여초선생추모회호대회 심사역임
속초평생교육문화원 수채화강사
마츠미술관관장



길 위에서 길을 찾다

116.8 x 91.0
순지에 분채 (2023)

<길 위에서 길을 찾다>, 116.8×91.0, 순지에 분채, 2023
해 질 무렵 산책을 하다가 물에 비친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 시간이 해 질 녘이 인지, 해가 뜨기 전 새벽인지 모호해 보였고 그게 하늘인지 물인지도 헷갈렸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나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그 사진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내 욕심에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어 헤매고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50호 F형 화판에 세로로 길게 그렸다. 순지에 크랙 작업을 하고 분채로 채색하였으며, 처음 작품 구상은 상하, 좌우가 없이 어느 곳에서 보아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에 비친 하늘을 보면서 물인지 하늘인지 모를 상황을 그리기로 하였다. 황혼에 비쳐 환하게 빛나는 구름, 그 앞에 하늘거리는 이름 모를 풀들, 물에 비친 하늘이지만 물과 하늘의 경계를 그리지 않았다. 그래서 화자로 하여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느껴지길 바랐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길을 찾았고, 방향에 맞게 가고 있었다. 빠르고 좋은 길은 아니고 좀 더 오래 걸리는 길이었더라도 나는 길 위에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다.

정다정



대한민국 문인화 회화대전 특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입선3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최우수상
강원미술대전 문인화부문 특선2회, 입선1회, 한국화 부문 특선1회, 입선 3회
강원여성문예경진 신사임당 회화대회 장원상
여초 전국 회화대회(공모전) 문인화부문 특선2회
대한민국 향토문화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우수상2회, 은상
2018~2023 먹노리 회원전
2019~2023 한국미협 속초지부 자선미술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전
2021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현)설악한국화동우회 먹노리 회원, (사)한국미협/속초지부 회원

빈 의자

39 x 54 cm
Procreate



여름날 빈 의자와 그림자를 본다.
유난히 더운 날이 연속이었다.

“빙글 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 둔 의자는 없더라
~~~~~

아아아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1966년 김용만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회전의자’라는 노래다.  
‘회전의자’는 당시 사회상을 풍자한 노래로 권력과 출세를 상징하는 곡이었다고 한다.

의자와 그림자가 달리보인다.  
흥얼거리며 올해 유난스런 더위를 달래본다.

작업노트 중에서....



## 정봉재

한국미협 속초지부전  
강원미술대전 초대추천작가전  
환동해권국제미술교류전  
도시의 미래 - 도시해킹 대만전  
K-Artist Festa 冬鼓同樂  
제8회 강원예술상 대상수상  
현. 한국예총 속초지회 고문, 한국미협 속초지부 고문, 강원 미술대전 초대작가



## 생명의 소리

10호F (53cm x 45.5cm)

아크릴 (2023)

질푸른 바닷속 거센 파도가 휘몰아친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노래하는 듯하다. 이 그림은 생명의 강인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파도는 생명의 변화와 역경을 상징하며, 바위는 생명의 강인함을 상징한다.

## 채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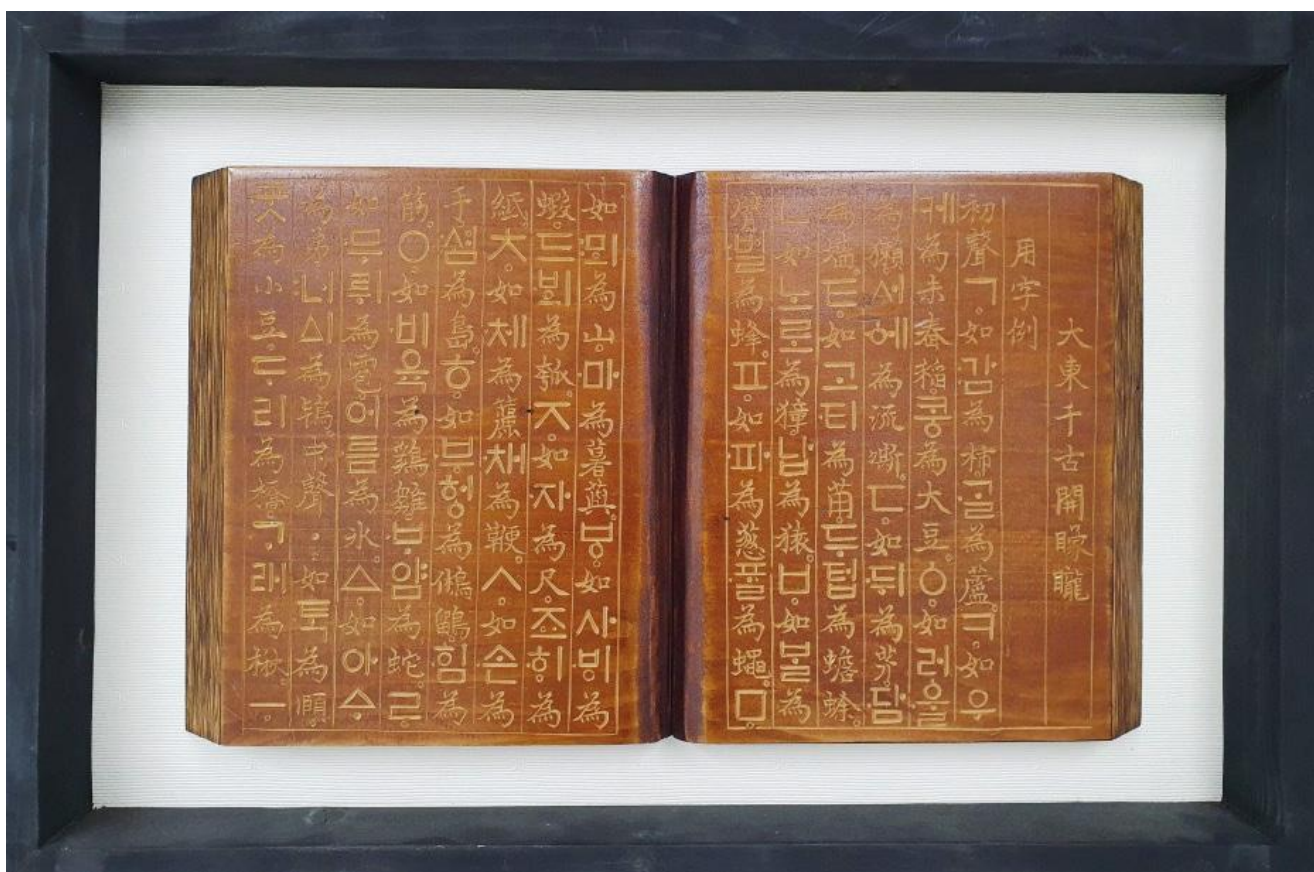
개인전 1회

신사임당미술대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17~2019)

강원미술대전 특선 (2020)

신사임당미술대전 추천작가, 강원교원미술대전 추천작가

강원도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속초지부전, 국립산악박물관기획전 등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속초지부 회원



## 훈민정음해례본

(620 x 400 x 30)  
행자목 음각 (2018.3)

051



## 한도웅

한국 전통공예명인회 전통서각명인 (전통 0059031)

사)한국미술협회 서각공예사범

제 12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개인전 4회, 회원전 120여회

사) 한국 각자협회 초대작가

사) 대한민국 남북통일예술협회 초대작가

사) 한국 전통공예문화예술진흥협회 초대작가

한국 유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사) 대한민국 문화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 서각예술인협회 초대작가

국제 평화 예술연합회 초대작가

사) 한국전통공예문화예술진흥협회 새봄의향기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수회출품 및 다수수상 - (사)한국미술협회

현)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전통서각강사

현) 문화예술공간 풀뭍을 대표

현) 사)한국미술협회 정회원



물레방아



강영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강영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 외옹치 해변에서 바라본 속초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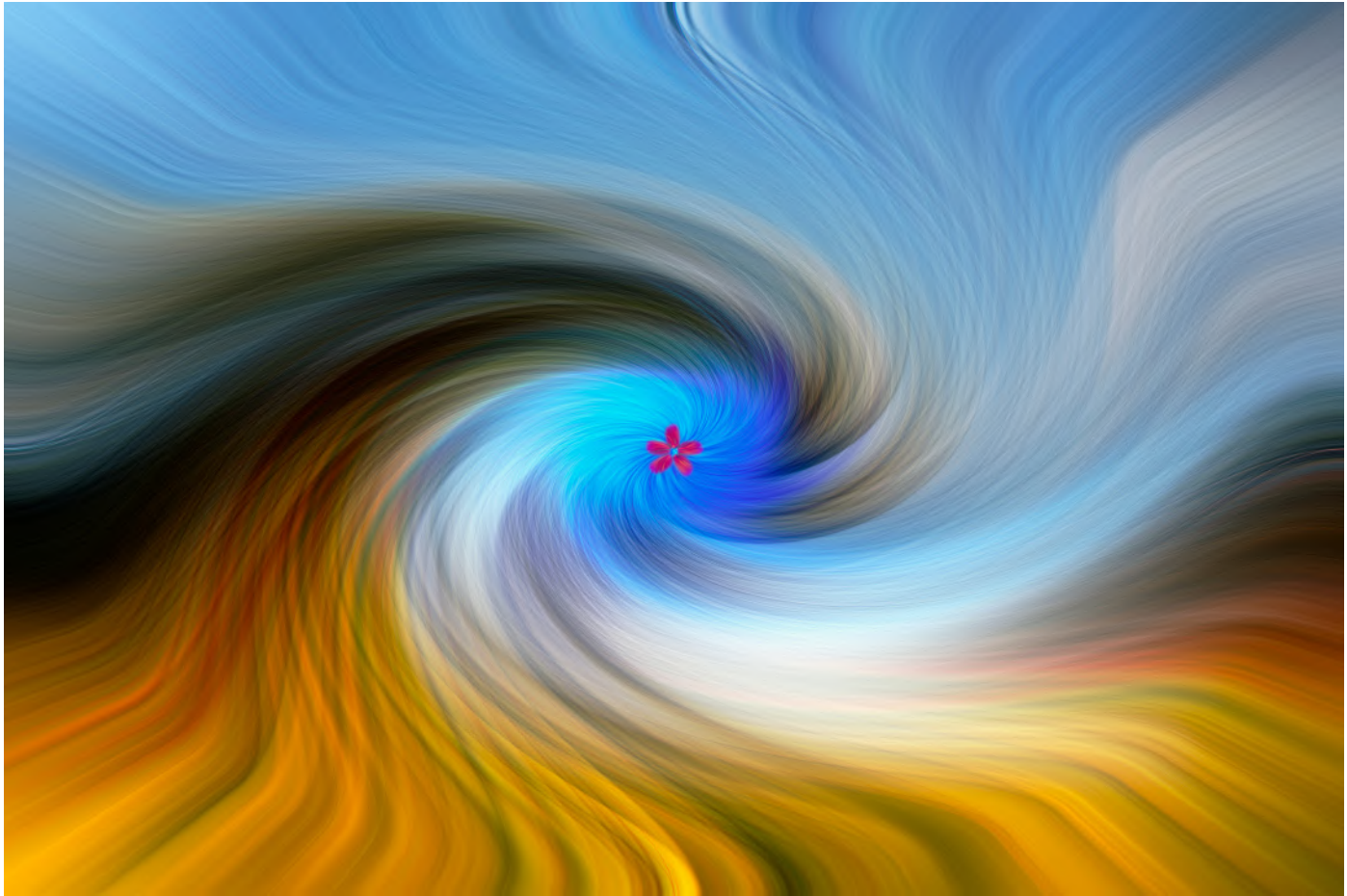


김광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선유줄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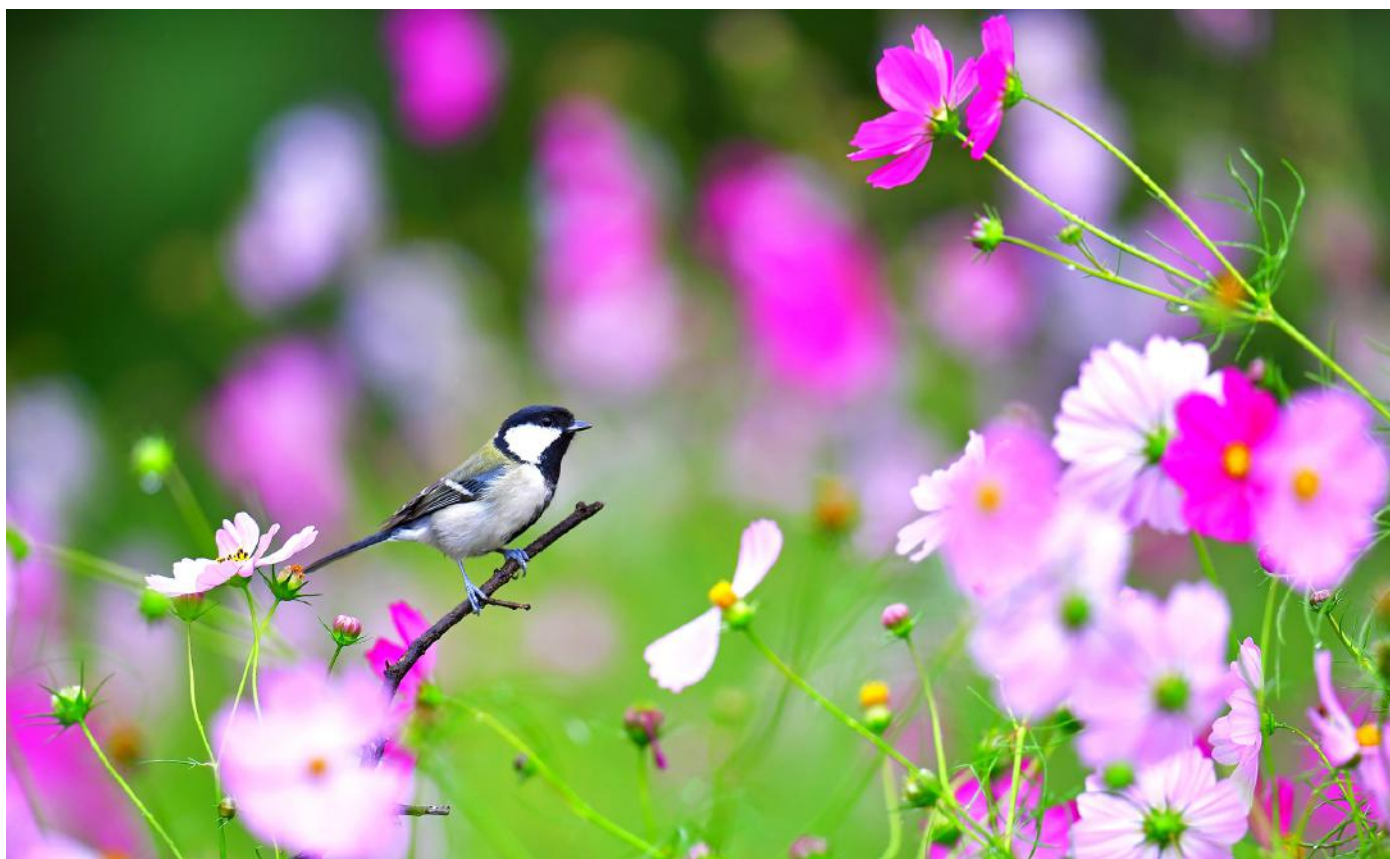


음의 흐름



김주향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진행간사



선종용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섭외간사



## 이광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사업간사

## 아침



## 시공간을 프레임에



이왕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감사



영랑호 춘경



아름다운 울산바위



정규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300년수령의홍매화



최수홍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홍보간사



**홍춘희**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재무간사



강영화

빠라

살기 위해 피난길 나섰다  
생명줄은 작은 배  
언제 돌아올 기약 없이  
홍남부두를 떠나  
북위38도 지나  
남쪽으로 넘어올 때  
미군 헬기가 빠라를 뿌렸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밀가루 포대

다들 처음 보는 거라 의심스러운 눈치  
이걸 가지고 떡장물 해서 먹으면  
참 맛이 좋습네  
누군가 말했다  
이북 사람들에게겐 처음 먹어본 수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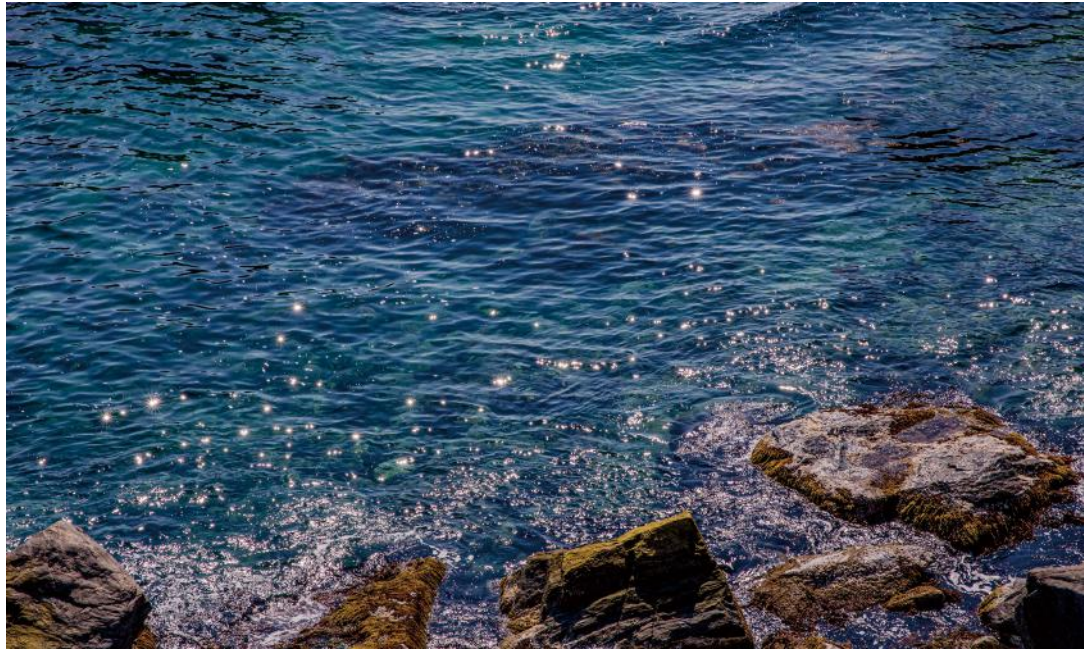
피난길 목숨은 험난했어도  
허기진 배를 채운  
밀가루 빠라였다.



강영화

- 2017년 『문학시선』으로 등단  
- 설악문우회 galwi 및 속초문협 동인





탁명원

- 2013년 환경문학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속초문인협회 회원
- 제25회매월당문학상 수상

영랑호永郎湖  
영랑정永郎亭  
범바위虎巖  
범바위는 속초 팔경 중 하나다  
잔잔한 호수의 물결  
범바위 앞쪽 수면은  
옛날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다 떨어졌다는 곳  
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무기의 숨굴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곳이다  
지금은 희미한 전설이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소용돌이 치던 물결의  
소멸과 함께  
영랑호의 전설도 사라졌다  
아득한 기억의 저편 너머로  
그렇게 영랑호의 전설은 잊혀져 갔다  
지금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

장은선

영금정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같이  
그는 종일 명상에 잠겨있다

물속 깊이 다리를 담그고  
거친 파도를 뒤집어써도  
오히려 사람들을 걱정한다

그의 우직한 참선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져  
저마다 마음속 가득  
속초 바다를 떠담아 가려한다

동해는 쉽사리 끝이 보이지 않아  
저마다 욕심을 조금씩 덜어낸 것들을  
영금정은 양식으로 아껴먹는다



장은선

- 2004 서울시 서울이야기 전국공모전 입상
- 2007 광명시 전국신인문학상 당선
- 2014 농어촌 문학상 수상
-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 속초문인협회 회원
- 고성문학회 회원

조외순

태양과 맞서는 남자



조 외 순

- 순수문학으로 등단
- 시집 : 푸른 눈시울에 걸린 하루
- 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 회원
- 속초문인협회 회원
- 현 설악문우회 갈매 사무국장



광년을 끌고 온  
따가운 햇발  
남편 얼굴에  
농사를 지었다

손맛이 제대로야  
온몸으로 여름을 업고  
바다와 낚싯대를 멍석에 깔아  
가을걷이 하더니

겨우내 그늘에서 숙성시킨  
허멀건 낚빛  
태양에서 건너 온  
들깨가 자라고 있다

노금희

비밀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내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다 찾은  
들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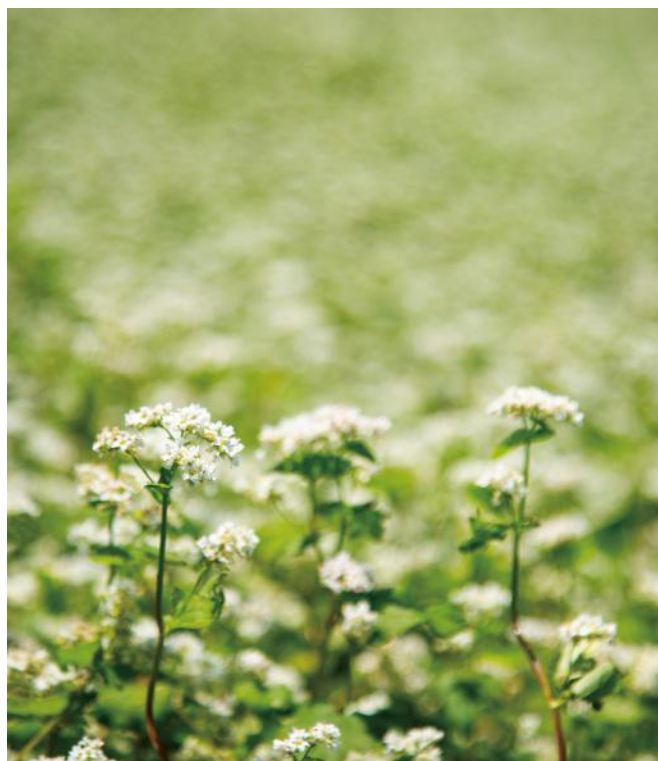
하루가 멀다 하고 땅에 엎디어 뽑아내는  
잡초처럼  
계속해서 번져 갈 것이지만

남은 나날은  
무공해 풀밭으로 우거지겠다



노금희

- 설악문우회
- 물소리 시간송회 회원
- 속초문인협회 회원





바다에 빠진 아침 해를  
건져내어  
그대와 나의 자리에  
놓아둔다

이처럼 뜨거웠을까

말간 봄꽃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에  
가슴 저린 적 있었던가

휘파람 불며 걸어가는  
새파란 면도자국 흠치며  
불히던 마음  
간직했던가

내안의 나와 부딪치며  
길 밖으로 내몰리다  
잠 못 드는 밤  
밝혔던가

그 이름들 스러진 자리  
그대라고 이름 짓기도  
미안하여  
백일홍 붉게 터지는  
골목길 돌아 나오며  
까닭 없이 서러웠다



이진여

- 2008년 시현실 등단
- 설악문우회 gallo 회원
- 속초문인협회 회원
- 설악시낭송회 '풀니움' 회장
- 그리운보리밥 대표

정영애

퇴행성  
관절염

068



드디어 떠돌이별 하나

무릎에 품고

나 절룩거리며 가네

퇴행성이라는 말

어쩐지 기분 나쁘네

하늘의 어느 별 이름 같은

천왕성이나 해왕성 닮은

태행성으로 부르고 싶네

내게서 까마득히 떨어져 있던

별 하나

반세기를 걸어 내 무릎에 당도한

눈물겨운 행성이네

나도 반세기를 걸어

답장처럼 만난 별이었네

가난하게 부은 무릎 속에

닿고 닿은 빛 잃은 별 하나로 앓혀 주고 싶네

앓았다 일어나는 밤하늘에서

아프게 부스러지는 별빛들

그래도 퇴행성이라는 말

기분 나빠

태행성이라는 우주별로 안고 걸어가네



정영애

- 제14회 지용신인문학상 당선
- 강원문인협회 회원
-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 속초문인협회 회원
- 강릉여성문학인회 회원
- 시집<나는 뒤통수가 없다.>

# 채재순

# 속초바다



## 채재순

- 1994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 시집 '그 끝에서 시작되는 길', '나비, 봄 들녘을 날아가다', '바람의 독서', '복사꽃 소금'
- 2013 강원문학작가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설악문우회, 물소리시낭송회회원으로 활동
- 현재 고성 광산초등학교장으로 재직

영랑호를 둥그렇게 걸어서  
영금정 앞바다 도착할 무렵  
해는 비로소 씻은 낮으로 떠오른다  
동명항 그물에선 기쁨의 물결 파닥이고  
수복탑 모자상 그들이 사라지는 건 이때쯤

보름달은 외옹치 바다로 와  
은빛 파도가 되고  
늦은 저녁 식사 후 발바닥 주무르는 이들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날이면  
단잠에 들게 되는 속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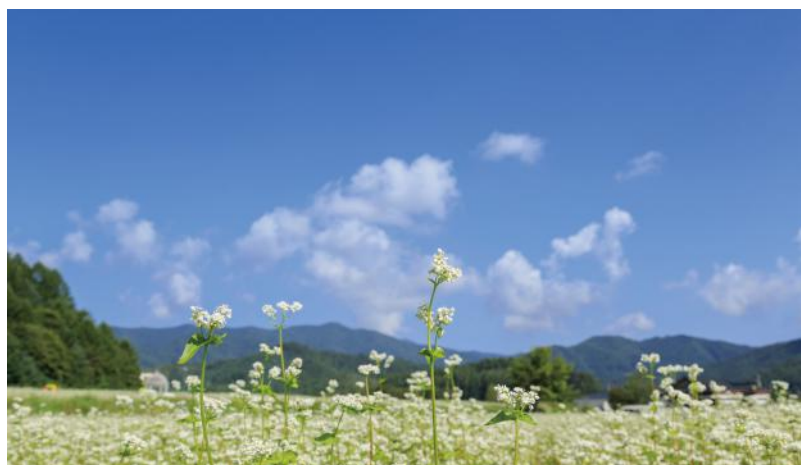
새벽이면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벧고동 소리에 맞춰  
어둠자락 물고  
수평선 쪽으로 날아간다는 걸  
속초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홍성희

메밀꽃 피다

070



하얗게 피어난 행복이 터진다  
톡 톡  
알맞게 익은 부지런함이 웃는다

가을별 따가워도 좋아라  
한나절 낮잠 즐긴 누렁이  
새끼들에게 젖 물린다

조그만 마음들 해맑게 피어  
눈꽃 되어 흩어져 날린다

붉은 노을 따라 놀다 온 아이들  
입가 가득 묻은 가을이  
따사로운 바람에 어물적 앓는다.



홍성희

- 2022년 8월부터 설악 문우회 갈매 및  
- 속초문인협회 동인으로 활동

# 이영수

# 나팔꽃



이영수

- 2022년 『시인정신』 가을호로 등단  
- 설악문우회 galwi 회원, 속초문인협회 회원

해무에 잠긴 바다

등대는 점자 더듬는 손길 되어 밤새 수척

허기진 개들은 골목마다 마른 혀를 내밀고

아비를 기다린 아이들은 꺾인 잎처럼 잠들었다

어마이는 야원 숨비 소리로

파도에 웃고름 다 헤쳐 놓은 해변에서

먼바다 아바이를 그들의 품으로 불렀다

지지할 곳 없던 모래밭 터전

판자에 박힌 못처럼 세월은 녹슬고

새끼들에 닳 내린 삶 따개비 된다

그렇게 뿌리내린 삶 모두 떠나고

시린 생의 이야기 벽화로 남아

낮선 길손에게 절름거리던 아픔

여름 그림자 되어 안내한다

어깨 기대고 흔들리던 자네 와 난

함께 묻히고 함께 돌아가야만 했다

끝내 해무에 갇혀 돌아오지 못한 낮

청호동 골목길 블록 담에 핀 나팔꽃

절규와 한숨이 서린 바다에

이봄세 왜 안 오는가

진혼의 나팔을 분다.



## 웃음

청대초등학교 2학년 3반 정서원

쑹쑹 쑹쑹

파릇파릇 잎이 돌아나네

화라락 화라락

여름의 태양처럼 장미꽃도 피어나네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꽃들이 활짝 웃네

쨍쨍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꽃들이 웃네

웃음 가득한 꽃들

## 웃음

청대초등학교 3학년 4반 김민준

오늘은 캠핑을 하였다.

캠핑을 하는 곳은 엄마 아빠 사무실이었지만 그래도 설레고 좋아서 웃음이 나왔다.

캠핑하는 사무실에 도착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바닥에 매트를 펴서인지 푹신푹신 느낌이 좋아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저녁이 된 후 고기와 라면을 먹고 보람이 이모와 내가 좋아하는 만화 얘기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 기억을 떠올리니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 실수

청봉초등학교 6학년 5반 김 태 연

대부분 사람이 말하길

실수는 실패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실수는 성공이다

한 번에 실수 반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

내 삶에 대한 성공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성공이다

## 실수

소야초등학교 6학년 1반 조 연 서

나는 실수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수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몸에 상처를 낸 것처럼 실수한 기억이 내게는 상처처럼 아프다. 실수를 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를 한 나 자신을 미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따지며 이미 깊이 파인 상처를 더 깊이 판다. 상처에 딱지가 앉을 때쯤이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딱지에 피가 나도록 한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야 상처는 아문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처가 났던 자리에는 지우지 못할 흉터가 남아 있다. 그 흉터는 내게 실수를 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닥쳐오면 그 흉터는 내게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하지만 내가 흉터를 지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흉터는 내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준다. 이렇게 상처는 내게 큰 고통과 슬픔을 주지만 내가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 나를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지켜준다.

그리고 내게 이러한 힘과 방어막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결코 '실수'를 싫어할 수 없다. '실수'라는 존재가 내 삶에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부족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만약 실수가 없는 내 인생에 실수가 등장한다면 나는 그동안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느꼈던 아픔보다 훨씬 큰 아픔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실수를 싫어하지 않는다. 실수는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지금 경험해 본 것에 감사하고, 지금 경험한 실수가 앞으로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실수

설운중학교 2학년 6반 정 봄

실수로 맞은 빗방울에 젖은 무거운 날개를  
싸매 안고 바닥으로 추락한 그 속에서 나는

축축한 지하 바닥에서 푸른 하늘을 그리는 이들을 보았을까  
감옥 같은 철창 사이로 보이는 흔들리는 나무를 보았을까  
날 났아 뭉개버리듯 다가오는 신발을 보았을까

매 순간이 두려운 찰나였으나  
빗방울을 원동력 삼아 돌아가던  
물레방아의 물방울 소리와  
낙하하며 건드렸던 젖은 풀잎의 푸르름,  
흐려지던 눈에 비추었던 번진 빛의 색깔에 도움 빌려본다

내민 손을 빌려 젖은 날개를 당당히 피우고  
빛을 향해 도약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눈에 담으리라

## 웃음

속초중학교 3학년 1반 박해랑

웃음은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  
웃음이 좋다

나무를 베어가며  
집을 지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다며 웃었다

돼지를 잡아가며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을  
먹일 수 있겠다며 웃었다

숲이 사라지고, 동물이 숨죽여도,  
나만은 웃음에 취해...

웃고 또 웃으며 휘청이던  
나의 앞을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와 돼지 한 마리가 서 있다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돼지가 나를 세계 붙들어 잡고,  
나무가 나를 천천히 베었다

나는 그들이 보여준 피눈물에  
최고의 핏빛 웃음을 선사했다

나는  
나의 웃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검붉은 선혈이  
입가에 맴돈다

## 실수

설운중학교 3학년 2반 김윤석

시끄러운 형광등 소리가 더욱 신경이 쓰이는 밤이다. 나는 너덜너덜해진 수학 문제집을 내 책상 위에 펼친 뒤 이해가 하나도 가지 않는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문득 아까 올린 핸드폰 알람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 핸드폰 가방에 있는데.” 귀찮음을 뒤로한 채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시간은 벌써 1시 58분. 내일 학교에 가려면 자야 할 시간이다.

핸드폰을 확인한 이유인 알람창을 켜 보았다 “실수하는 거야 너.” 솔솔 오던 잠이 한 번에 깨어졌다. 나의 첫 번째 어머니이자 나를 낳아주신 엄마 지금은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내 어머니였다.

여러 가지 가지 섞인 말들이 내 마음을 찢었다. “니 아빠랑 새엄마 그놈이랑 잘살아 봐!” “네 아빠랑 결혼한 건 내 인생의 실수야.” 16년 동안 살아오며 이런 일은 이제 나에게 있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별생각 없이 다시 핸드폰 전원 버튼을 꼭 눌렀다.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떠보니 새소리가 들렸다. 내 주위에 아파트 창틀 그림자와 아침 햇살이 섞여 내리쬘고 있었다. 기분이 묘상하여 핸드폰을 켜보니 7시 45분, 지각이었다. 어떻게 불안한 예감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새도 없이 새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었다. “윤석아 얼른 준비 안 하고 뭐 하니?” “지각이야! 지각.” 서둘러 나는 어제 풀다가 만 수학책, 필통, 이어폰 등을 챙기고 화장실에 들어가 비누를 손에 문혔다. 거품들이 내 주위를 날아다니며 나를 재촉하는 듯했다. 밥을 먹으라는 내 두 번째 어머니의 말을 뒤로한 채로 나는 현관문으로 날랐다. 아빠는 나의 예상대로 나보다 10분, 아니 20분은 더 먼저 내려가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셨다. 나는 빠르게 달려 차를 탔다. 아빠가 눈치를 주듯이 말했다 “늦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나는 학교에 가는 내내 야단을 맞았다. “어젯밤에 왜 늦게 잤냐?”부터 시작해 곧 다가올 시험 준비까지. 나는 내 주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와 건물들을 멍한 채 응시하며 아빠가 하는 말들을 흘렸다. 아빠는 그런 나를 못마땅해하시는 눈치였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아빠에게 “아, 알았어” 한마디를 남긴 채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려 손목을 확인했다. 36분이었다 반까지 전력 질주한다면 충분히 4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휴” 지각 벌칙을 면했다고 안심하던 나에게 갑자기 무엇인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아, 내 폰!” 아까 아빠의 잔소리 폭탄을 피하느라 조수석 옆 손잡이에 놓아둔 핸드폰이 떠올랐다. 저 멀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아빠 차가 보였다. 내 옆을 지나가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반대로 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뛰었다. 내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커졌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아빠의 차를 간신히 붙잡아 핸드폰을 다시 찾았다. 또 아빠가 나에게 잔소리를 시작

하려던 찰나 나는 다시 뽕박질을 시작했다. 어떻게 되던 지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교실 문을 벌컥 열었다 “지각이다. 김윤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날 보고 깔깔댔다 나는 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른 채로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인 엄마가 밋기도 했지만 오늘 일은 명백하게 나의 실수였다. 나는 내 화를 이기지 못해 하루 종일 신경이 날카로웠다. 그러다가 까불거리는 내 5년 지기 친구 우준이가 결국 나를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야야 오늘 왜 늦었냐. 새엄마가 밥 먹고 가라던?”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쿵 내리쳤다. “자꾸 그러지 말라 했잖아!”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넘길 말이었지만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과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친구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후회란 파도가 밀려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시간에 그것도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타임 머신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날 점심시간 국어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국어 쌤은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셨다. 그러고는 내게 물으셨다. “내일까지 좋은 실수와 나쁜 실수에 대해서 A4용지 5장 분량으로 준비해 와.” 뒤에 “A4용지 5장 분량으로 준비해와”는 진짜로 A4 용지 5장 분량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보자는 속뜻을 가지는 국어 쌤만의 장난 섞인 진심이었다. 학교가 끝날 때까지 무엇이 좋은 실수고 무엇이 나쁜 실수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도저히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질 않았다. 내 인생에 있어 실수는 언제까지나 하면 안 되고 좋지 않은 것인데 좋은 실수를 찾으라니 나는 정말 이 질문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굣길에 오른 내 발 앞에 어느 수학학원 전단지가 하나 바람에 날려왔다 ‘저희 학원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생을 성장시킵니다. ○○학원.’ 그 순간 내 눈에는 실수, 반복, 성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좋은 실수란 반복하여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장시키는 실수이고 나쁜 실수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탓만 하는 자신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에 대해서 알아내고 나서 어제 엄마와 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 했다.

“우리 엄마가 나쁜 실수가 아닌 좋은 실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며 감겨있던 내 눈에 이유 모를 눈물이 맺혔다.

## 웃음

속초여고 1학년 7반 **이재빈**

봄 한철 지독한 꽃 먼미를 앓고도 여름은 오고  
이제는 가야 할 때  
당신과 나는 사시나무 아래에 앉아 어깨를 맞대고 눈을 감는다  
여름 냄새가 났어  
풀냄새가 났어  
짙레꽃 냄새가 났어  
작게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났어  
쓰름매미 소리가 났어  
산들바람이 여기저기 부대끼는 소리가 났어  
이윽고 눈을 뜬다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웃음짓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당신은 잔디를 손등으로 훑고는 손을 내 코에 가져다 댄다  
손가락 마디 틈에, 당신 향기 틈에, 흙과 풀 냄새가 남아 있다  
당신은 자꾸만 웃는다  
여름 햇볕에 달구어져 한껏 반짝이는 당신 웃음  
갖고 싶어라, 갖고 싶어라  
여름은 우리를 재촉하듯 더 거세게 끓어오른다  
땀 흐르듯 눈물은 흐르는데  
우리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한참을 웃어댔다  
그때 우리 그 웃음은  
웃음이었나  
울음이었나

## 웃음

속초여고 2학년 9반 정가은

정아, 너의 웃음소리는 단순히 “하하”, “호호”의 소리가 아닌 우리 말의 ‘표 발음으로’ 시작하여 ‘ㅎ 발음으로’ 끝이 났지. 평소에 인상은 얼음 공주처럼 차갑지만 어딘지 모르게 흑백을 뒤집어 쓴 네 얼굴에게 나라는 사람은 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로 남고 싶었다. 정아, 어쩌면 네 이름의 ‘정’은 ‘아름답다’는 뜻을 지닌 ‘정’이 아니라 사람 간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정’이 아닐까 하고 예전부터 줄곧 그리 생각해 왔어, 잠시 너에게만 내 마음을 살짝 보여주자면,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웃음에 있어 진실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정말 웃기지 않니?

제대로 웃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의 입꼬리를 귀에 올리고 피가 쏠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붉은 얼굴을 만들겠다니, 이보다 어이없어 배 잡고 웃는 일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거야. 너 혹시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웃음은 전염된다. 웃음은 감염된다”를 알고 있니? 이 둘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대. 해로움은 막아주고 생명은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같은 이름을 가진 셰익스피어 또한 그렇게 말하였어. 우리는 웃음이 긍정의 표현인 줄만 알고 그 웃음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방금 너가 내 말을 듣고 어이없이 웃겨서 너의 작은 입을 벌리고 소리냈던 것과 같이, 웃음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표정이나 소리로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해. 운동장에서 비눗방울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네 얼굴에 나도 모르게 널 따라 “푸핫”하고 큰 소리로 웃었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겨울 네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도 슬픔을 가리기 위해 가면의 용도로 사용한 너의 웃음을 처음으로 우습게 여기고 애써 썩은 미소를 지어내려고 한 나의 얼굴도 내 기억에 아직까지 선명히 자리 잡고 있어. 정아, 나는 너로 인해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누군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우리의 웃음을 ‘애정’이란 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칭하고 싶어.

다음에는 너가 미소 지을 수 있게 우리가 좋아하는 짙은 녹색의 무언가를 만끽하러 가자.

## 60

일반부 **홍은정**

내가, 첫 번째 햇살을 안고  
태어났을 때  
육십고개 닿은 듯 울 할매는  
애지중지 간장독에 하얀 찔레꽃이 피었다고  
좋아라 하셨다

물비늘따라 세월도 닳아

울 엄마 머리 위에  
찔레꽃이 또 피었다

이미, 애기가 되버린 울할매 정수리에  
마지막 햇살이 내려앉을 때  
찔레꽃잎은 휘날리고

머지않아  
거기에 육십고개가 있다  
오늘도 난,  
'찔레꽃' 곡에 몸을 싣고 라인댄스를 춘다

## 60

일반부 박 성 순

산 넘고 물 건너  
달려온 세월 위로  
60이란 붓짐을 풀어놓고  
흘어진 시간을 담아 본다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구인 광고를 헤집어 보니  
올라설 수 있는 계단의 길은  
60이란 선 너머에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벌써 와 버린 생의 정거장  
가슴에 묻어둔 갈매기 꿈을  
다시 펼쳐보리라 다짐하지만

중고품 앞에 고개 떨구는 빈손  
마음도 몸도 필요로 한다

리모델링

## 좋은 사람

일반부 변 주 영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연결 시 통화료가 발생 됩니다. 뽀—>

며칠 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를 듣자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 전화를 수신 차단 한 걸까?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나는 별별 생각을 다 했다. 그중에는 언니가 혹시 죽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둘러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이 넘게 전화벨이 울리고서야 전화를 받은 조카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했다. “이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태연한 조카의 목소리에 내 심장은 겨우 평 상태로 돌아갔다. “엄마,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별일 없지?” 내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다. 조카는 하품을 하며, “엄마요, 명상 수련하신다고 가셨어요.” 괜한 걱정을 한 게 민망했지만, 내가 과한 상상을 할 만한 이유는 있었다.

나보다 4살 위인 언니는 내게 이상 같은 사람이었다. 얼굴도 예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 부회장까지 했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둔한 아이였다.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기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30년을 살아버린 어느 날, 언니가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 “나, 이혼할까 봐.” 이날 이후로 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애들한테도 못 할 짓이고” 했다가 그다음 날에는 “아니야, 역시 이혼을 해서 깨끗이 새 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 이랬다, 저랬다. 울었다, 웃었다가 했다. 처음에는, 결혼보다도 더 큰 일인 이혼을 나 역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언니의 감정에 따라 함께 우왕좌왕했는데, 몇 날 며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자니, 내 속에서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언니에게 소리치고 말았다, “인제 그만 좀 해.” 내 말을 듣자마자 언니는, TV의 뮤트 버튼을 누른 듯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잠시 후 전화는 뚝 끊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괜한 소리를 해서 안 그래도 심란하고 우울한 언니에게 상처를 줬네? 반성하다가도, ‘아니야, 언니가 좀 너무했어. 뻔질나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한다, 안한다. 내가 지칠 만도 하지, 괜찮을 거야’ 자위하기도 했다. 언니는 그날 이후,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나는 언니의 침묵 속에서 점점 불안감을 키워갔다.

생각해보면 이혼이란 게, TV 드라마에서처럼 종이쪽지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살 맞대고 애들 키우며 함께 살던 사람과 남남이 되는 일이다. 분명 절친과 절교하는 일보다 수십, 수백 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생각했다는 건, 언니가 그 이유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였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결정하기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조카에게“엄마, 집에 오시면, 이모한테 전화 왔었다고 꼭 전해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언니는 지금쯤 어떤 명상을 하고 있을까? 언니의 명상 끝에는 어떤 결론이 있을까?

똑똑한 언니는 분명 현명한 결론을 얻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러고 보니 언니는 나보다 고작 4살 많을 뿐인데, 어린 내게 해준 게 많았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내게 가르쳐주었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걸스카우트 입단식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러 온 것도 언니였다. 뮤지컬 공연장에 처음 데려간 것도, 파르페라는 아이스크림을 사준 것도 모두 언니였다. 그런 언니에게 고작 몇 번의 하소연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니...

눈을 감았다. 언니도 지금쯤 명상센터에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으리라. 텔레파시라는 게 진짜 있다면, 내 생각이 언니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랑해.’

## 설악청소년 미술작품 공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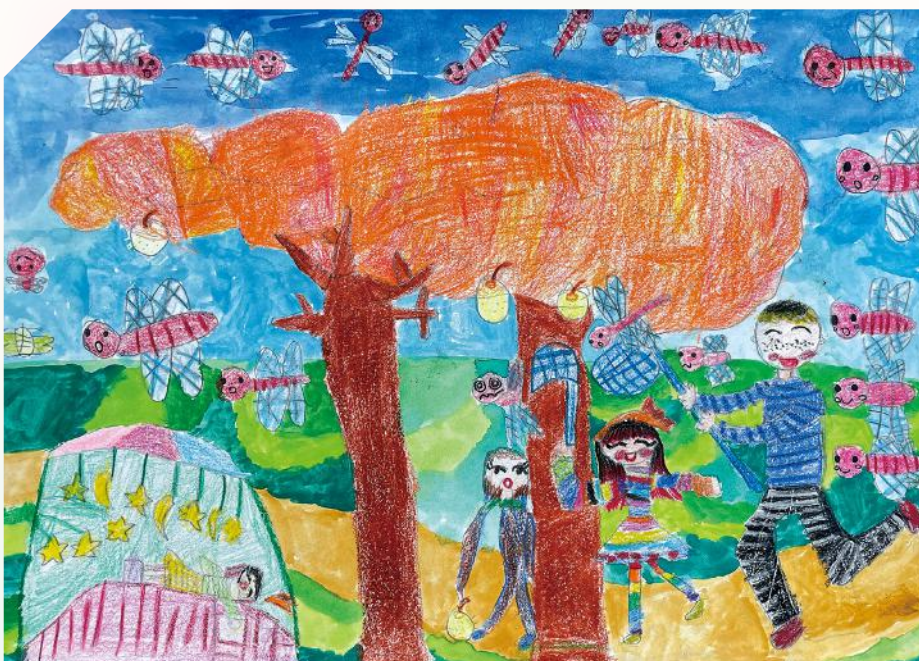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설악학생 미술작품 공모를 하고 있다. 올해는 34회차로 총290명 참가해 심사를 통해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통 상장과 상품을 시상하였다. 2023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 참가작 중 부문별 금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김 가 현 고등부 금상 속초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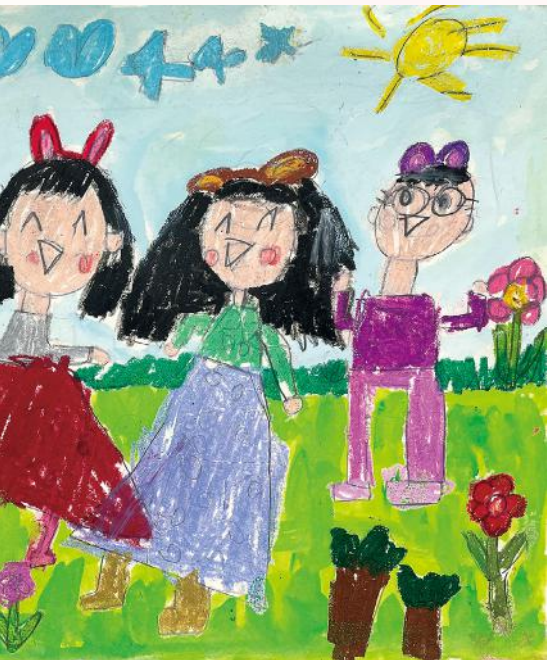


086



고 은 비 초등1부 금상 간성초등학교





정 유 진 유치부 금상 속초유치원



김 예 지 중등부 금상 설온중학교



남 지 우 초등2부 금상 간성초등학교



김 민 지 초등3부 금상 간성초등학교

### 속초예총 사무감사

(사)한국예총속초지회는 1월 5일(화) 오전 10시 권오돈감사, 임흥빈감사가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2022년도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의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의가 1월 12일(목) 오후 3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이루어졌다. 재적이사 27중 18명이 참여해 제1호 의안 2022년 수입·지출 결산(안),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제3호 의안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및 부의의 건을 의결하여 제1호의안과 제2호 의안 모두 찬성으로 의결, 제3호 의안은 2월 15일(수) 오후 3시 속초문화사랑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진행했다.



### 속초예총 제34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34차 정기총회가 2월 15일(수) 오후 3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대의원 41명중 41명이 참여, 2022년 감사 보고 및 주요 업무 경과보고, 2023년 수입·지출 결산(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3대 속초예총 임원 개선의 건으로 진행했다.



### 속초예총 제12대. 제13대 지회장 이·취임식

속초예총 제12대. 제13대 지회장 이·취임식이 3월 22일(수) 오후 6시 30분 아남프라자 20층 뷔페홀에서 진행했다. 각급기관 단체장 및 언론사, 문화예술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봉재 전임 회장의 이임사, 박치영 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선출된 부회장 소개와 속초시장 및 속초시 의회 의장의 축사 및 격려사 그리고 신승태 가수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 2023 강원연극제 at 강릉

제40회 강원연극제가 3월 22일(수)부터 4월 2일(일)까지 강릉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펼쳐졌다. 극단 파람.불의 “옥이가 오면”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늘천당지의 “산국”이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청봉의 “Enigma(에니그마)”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연기상에는 대상작 파람.불의 “옥이가오면”에서 황노인 역으로 열린한 석경환 배우가 뽑혔으며 우수연기상은 김강석(파람.불 “옥이가오면” 김씨 역), 권다림(하늘천당지 “산국” 여자3 및 몸종 역)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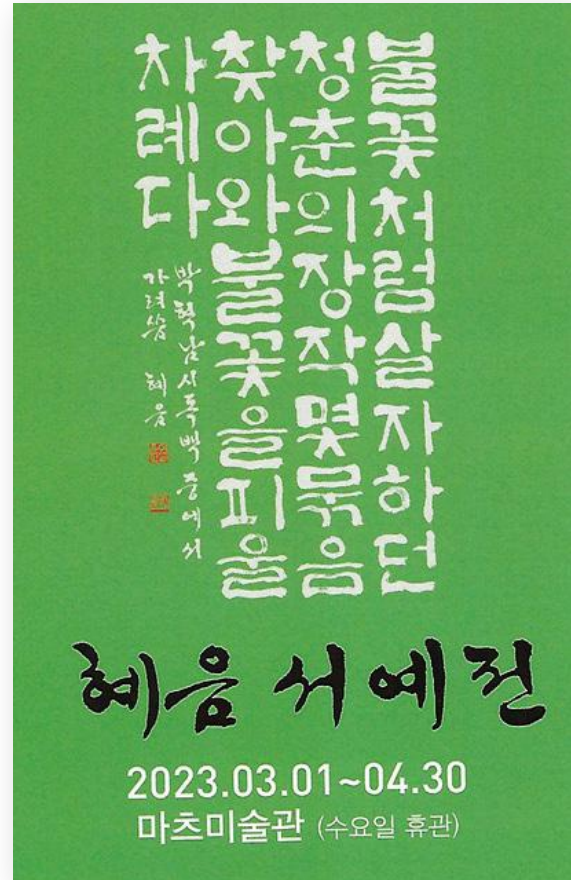
## 고주리 작가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고주리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2월 27일(월) ~ 3월 15일(수)까지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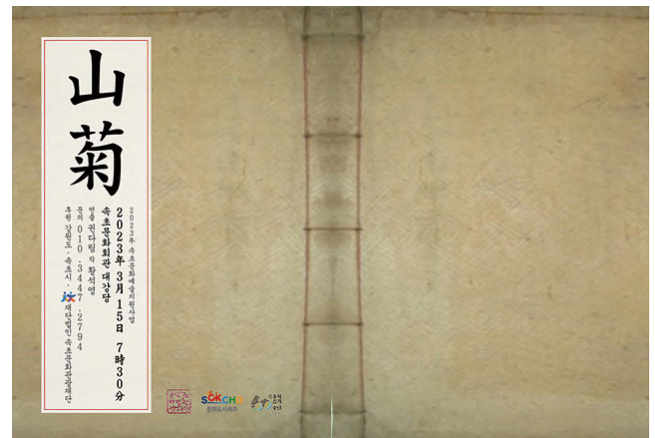
## 이설윤 작가 전시회 “혜음 서예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이설윤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3월 1일(화) ~ 4월 30일(일)까지 마츠미술관에서 열렸다.



## 극단 하늘천당지 연극 “산국(山菊)” 공연

극단 하늘천당지에서는 3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 회관 대공연장에서 “산국(山菊)”을 공연했다. 구한 말역사의 격변기 민초들과 의병들의 애환을 그린 가슴 저린 작품이다.



## 어영옥 작가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어영옥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3월 16일(목) ~ 4월 5일(수)까지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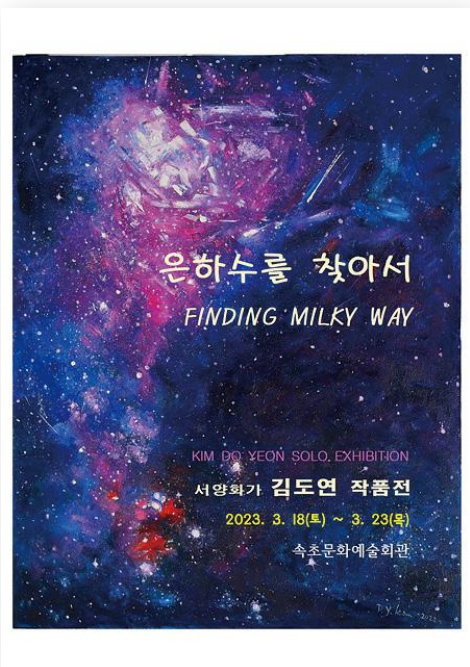
## 박귀례 작가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박귀례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5월 4일(목) ~ 5월 14일(일)까지 아트플랫폼 갯배 갤러리에서 열렸다.



## 김도연 작가 전시회 “은하수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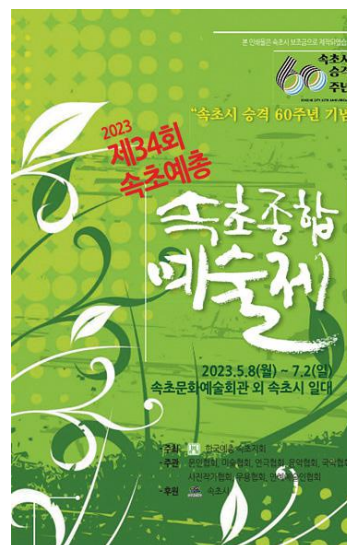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김도연 작가의 개인 작품전 “은하수를 찾아서”가 3월 18일(토) ~ 3월 23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 제34회 속초종합예술제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지회장: 박치영)는 5월부터 7월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청초호 해상공원 등에서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제34회 속초종합예술제를 국악협회속초지부의 제20회 정기연주회와 개막식을 더불어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속초예총 소속의 8개 예술협회(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예술인들이 지난 1년간 준비한 창작 결과물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다채로운 공연, 경연, 전시 등 10개 행사가 순차적으로 펼쳐졌다.



### 제34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34회 설악청소년 학생미술작품전은 5월 8일(월) ~ 5월 26(금)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창의성 개발 및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며, 지역 미술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 미술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입상작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 극단 파.람.불 2023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옥이가 오면”

극단 파.람.불에서는 5월 20일(토)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옥이가 오면”을 공연했다.



### 제34회 속초시민백일장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34회 속초시민백일장이 5월 25 일(목) 오전 10시 청초호해상공원에서 열렸다. 200여 명이 참가 하여 시와 산문 작품을 지었다. 및 초·중·고등부는 「속초」, 「실수」, 「웃음」 일반부는 「속초」, 「좋은사람」, 「60」란 시제로 대회가 열렸 다. 학생들에게는 글쓰기 체험의 기회를 주부들에게는 잠재적인 문학창작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2023 속초국악협회 정기공연 “춤, 소리로의 초대”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주관 제20회 국악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 및 개막식이 5월 26일(수) 저녁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열렸다. 「춤, 소리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도문농요, 타악 퍼포먼스(비선류), 태평소합주(취선악), 돈돌라리, 신속초사자 놀이, 민요연곡, 도리원농악 판굿 등 공연이 펼쳐졌다.



### 봄맞이 힐링콘서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 주관으로 5월 31일(수) 오후 2시 속초해수욕장 정문에서 봄맞이 힐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지역 예술인이 참가하는 클래식, 재즈 등 코로스 오버 공연이 이루어졌다.



### 제28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28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6월 10일(토) ~ 6월 15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 작품과 일본 요나고시 학생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서로 다른 미술 세계를 접하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미술 전시회였다.



092

### 제48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展 ‘설악의 향연’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48회 한국미술 속초지부展 “설악의 향연”이 6월 3일(토) ~ 6월 8(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의 향연은 아름다운 설악산과 동해, 호수와 꽃, 그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작가들도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시회가 문화적 삶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과 작가들의 소통의 공간, 작은 단비가 되길 희망하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미술 전시회로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부문 총 6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 2023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초청공연 -극단 청봉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극단 청봉의 가슴 깊이 함께 부르는 희망가 “에스뿌아”를 6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였다. 극단 청봉 15주년 기념공연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조작, 공작, 위선과 불신의 모명으로 숨죽여 살아온 남북귀환어부 에 대한 이야기로, 남북귀환어부 가족3대에 걸친 트라우마를 이제라도 재조명하여 작은 울림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 ●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연극, 일상에 스미다”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가 6월 15일(목)부터 7월 3일(월)까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BeIN,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졌다. 극단 파.람.불의 “옥이가오면”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김씨 역할을 한 김강석 극단 대표가 연기상을, 황미래 역할을 맡은 조은진 배우가 신인 연기상을 받았다.



### ● 2023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 “voice in sokcho”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 콜라보공연이 6월 17일(토) 오후 4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클래식 앙상블 “클랑:과 S.M.P(Sokcho Music Party)밴드의 콜라보 공연으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 ● 제18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및 제4회 한중국제자매도시 사진문화예술 교류전

제18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및 제4회 한중국제자매도시 사진문화예술 교류전이 6월 17일(토)부터 22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해 매력적인 자연경관과 생동감 있는 모습의 사진 8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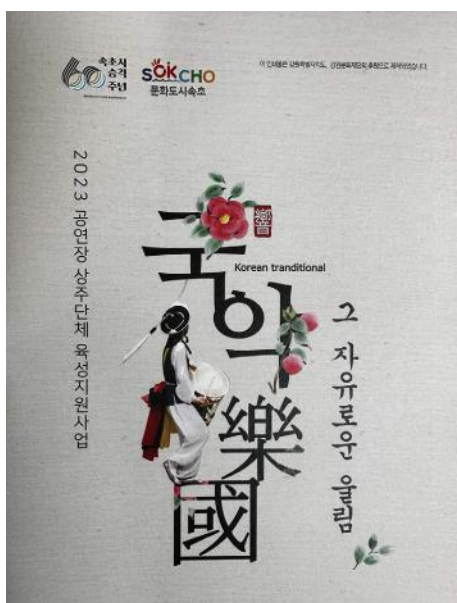
### ● 2023 양숙희 무용단 “춤으로 맞이하는 옛시조” 공연

양숙희 무용단 주관으로 ‘백호 임제’의 시조 ‘북천이 맑다 커늘’을 위시하여 옛 시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춤으로 해석 안무한 한국 무용 창작작품을 선보였다. 이 무대는 7월 1일(토) 오후 6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기획 공연 사업 - 갯마당 “세월아, 잠시만요”

갯마당에서는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기획 공연 사업으로 “세월아, 잠시만요”을 7월 7일(금), 9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9월 2일(토)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세월아, 잠시만요’는 속초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재미있는 만담과 시대별 성행했던 음악 장르를 연주해 시대를 공감하는 이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 시절의 향수를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담의 내용을 설정하고 해설이 있는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 2023 속초무용협회 정기공연 “우리 춤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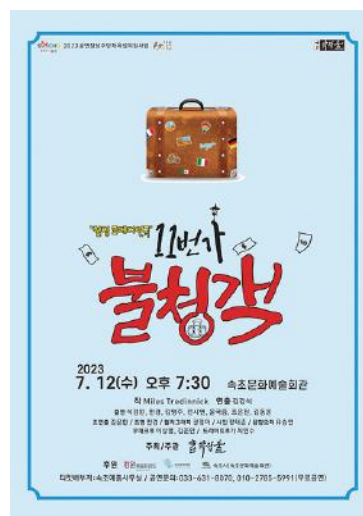
대한무용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정기공연 ‘우리춤 속으로’를 열었다. 마중 그 설레임, 화관무, 복천이 많다 커늘, 설장고 춤, 한영숙류 태평무, 설악의 향기, Poppin 댄스, K-POP 댄스, 다함께 아리랑 등 작품을 7월 12일(일) 오후 4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였다.



###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기획 공연 사업

#### - 힐링코미디연극 “파.람.불 11번가 불청객” 공연

극단 파.람.불에서는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기획 공연 사업으로 힐링코미디연극 “11번가 불청객”을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11번가 불청객”은 정직하지만, 가난한 톰과 엘리스 커플이 신혼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돈이 가득 든 캐리어와 톰의 캐리어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힐링 코미디 연극이다.



### 채재순 시인 다섯 번째 시집 “집이라는 말의 안쪽” 발간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회원인 채재순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집이라는 말의 안쪽”을 현대시세계 시인선 150번으로 출간했다. 이번 시집의 테마는 ‘집’이다. 첫 시 ‘매화나무-집1’부터 마지막 시 ‘흔들리며 흔들리며-집 100’까지 모두 ‘집’을 부제로 달았다.



## 움직이는 미술관 작품 전시

속초문화관광재단, 호텔, 리조트 속초문화예술단체(속초예총, 민예총)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작가의 작품들이 돌아가면서 롯데리조트 속초, 마레몬스호텔, 설악 켄싱턴호텔, 한화리조트 등에 8월 1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임흥빈 작가(사진), 어영옥 작가(회화), 지오최(회화), 추니박(회화) 작품이 전시된다.



## 조정남 작가 개인 전시회 “그림 旅情 71”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조정남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8월 26일(토)부터 9월 8일(금)까지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열렸다. 서양화, “그림 여정 71”에서 속초의 풍경을 정감있게 표현한 그림을 전시, 관람객들에게 발길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선사하는 전시회를 진행했다.



## 2023 지역작가 작품 임대 전시

2023 지역작가 작품 임대 전시에는 서양화,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소재와 분야로 다채롭고 활력 넘치는 지역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해밀요양원, 속초시립도서관, 속초교육문화관, 속초교육도서관, 한화리조트 등에 9월~11월까지 임대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23 제61회 강원예술제- ‘강원무용축전’ 공연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예술행사인 제61회 강원예술제가 9월 2일(일) 강원종합예술제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대한무용협회 속초지부는 강원무용축전에 참가하여 마중 그 설레임, 화관무, 복천이 많다 커늘, 설장고 춤, 한영숙류 태평무, 설악의 향기 등을 선보였다.



2023 양숙희 무용단 “춤-화문석을 벗어난 꾀꼬리” 공연

양숙희 무용단 주관으로 ‘춤-화문석을 벗어난 꾀꼬리’를 공연하였다. 춘앵무의 변주로 구성된 창작작품을 9월 8일(금) 오후 7시 속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루다 김(영미)작가 개인 전시회 “Deraming”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김영미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9월 20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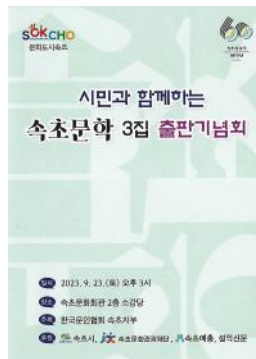
제16회 속초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 풍물 연희극 달팽이 어물전

속초시립풍물단이 오는 9월 22일(금) 저녁 7시 정기연주회 풍물연희극 ‘달팽이 어물전’ 공연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돈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부자가 되어 편히 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풍자를 자유롭고 활동적인 타악의 모습과 스토리를 가미한 연극 형식으로 풀어낸 참신한 창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속초문인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문학 3집 출판기념회”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주관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문학 3집 출판기념회 행사가 9월 23일(토)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지역 문학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문인협회 회원들의 열정으로 써 내려간 ‘속초문학 3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에는 회원들의 작품 낭독 및 축하 마당, 초대 시 낭독 독자 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했다.



##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 - 성화무 공연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 천제 및 성화 채화 행사를 10월 4일 설악산 권금성에서 진행했다. 대한무용협회 속초지부는 이 자리에서 성화무 공연을 선보였다.



##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 - 로데오프린지공연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를 맞아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알리는 장을 마련 거리퍼레이드 구간 4개 거점에서 프린지 행사를 10월 6일(금) 오후 3시 국악 존, K-POP 존, 댄스존, 클래식 존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 - 토요프린지공연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를 맞아 토요프린지 행사를 10월 7일(토)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도문메나리공연을 시작으로 두두리 퓨전난타, 청춘어울림의 아코디언연주, 작은거위의 오카리나 연주, 어디든프로젝트의 POP 공연, 속초사자놀이, 그리고 양숙희무용단의 무용 공연을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선보였다.



##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 - 일요프린지공연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58회 설악문화제를 맞아 일요프린지 행사를 10월 8일(토)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더 놀자의 드럼공연을 시작으로 SMP 밴드의 공연 윤경숙 춤바댄스, 오카리나 앙상블, 장영숙 춤바댄스, 드림댄스아카데미의 청소년 댄스공연 아라리 흥마당의 퓨전난타 공연을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선보였다.



● 제57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를 담은 에코백만들기 & 캘리그래피 엽서에 우리학교 교화 스탬프 찍기”

제58회 설악문화제를 맞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에선 “속초를 담은 에코백만들기 & 캘리그래피 엽서에 우리학교 교화 스탬프 찍기” 체험을 10월 6일(금)부터 10월 8일(일)까지 열었다.



● 제58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시민가요제 “나도, 설악스타”

제58회 설악문화제를 맞아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 주관으로 속초시민가요제 ‘나도, 설악스타’가 진행되었다. 10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설악문화제 메인무대에서 속초 시민이 경연을 펼쳤다.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맘껏 끼와 재능을 뽐내는 시민들의 삶에 위로와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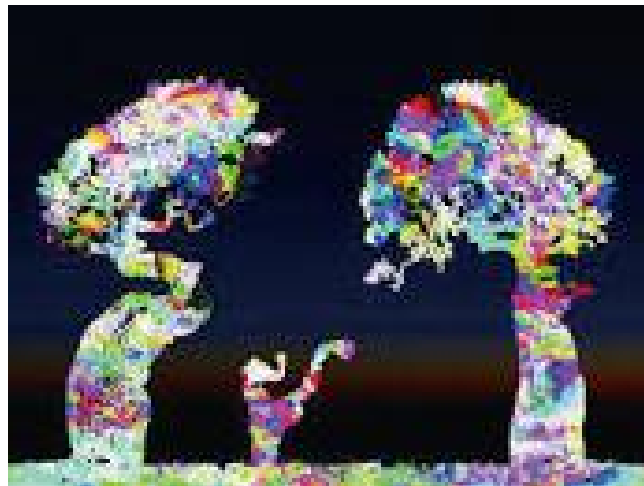
● 제41회 인제합강문화제 - 제례무 공연

제41회 인제 합강 문화제 행사중 합강제례행사가 10월 13일 (금) 오전 10시 30분 인제군 중앙단에서 열렸다. 제례 후 대한 무용협회 속초지부는 제례무 공연을 선보였다.



● 제40회 청봉사진전시회 및 제9회 속초·요나고 사진교류전

제40회 청봉사진 전시회 및 제9회 속초·요나고 사진교류전이 10월 14일(토)부터 10월 20일(금)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청봉사진회 회원작품 35점과 일본 요나고사교회 회원 작품 9점, 그리고 청봉사진회 선배 회원 4인의 작품 1점씩도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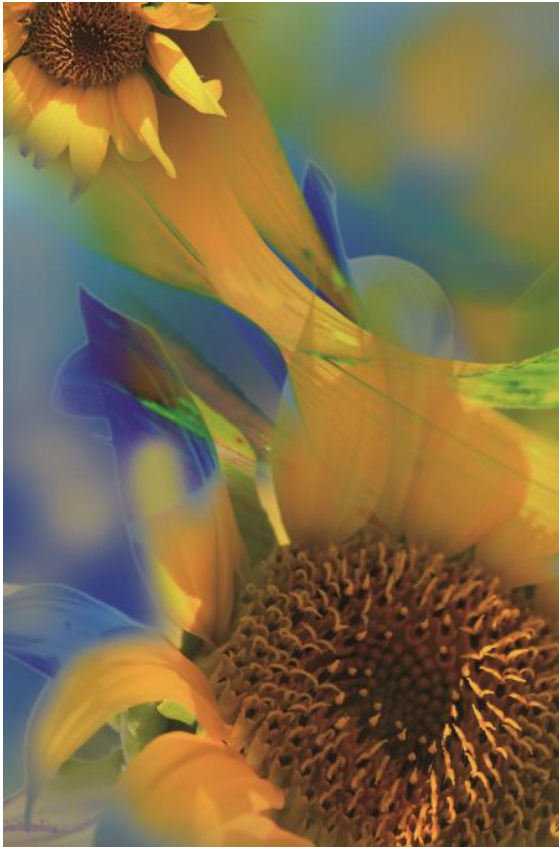
### ● 박동국 작가 개인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박동국 작가의 개인 작품전이 10월 28일(토)부터 12월 5일(화)까지 인제 내설악 백공미술관에서 열렸다. 수채화, "밭길따라 잉태한 풍경"에서 200호 이상의 대작들과 여행지 현장에서의 스케치 소품 등 130여점이 선보였다.



### ● 2023 제6회 설악사진작가협회 정기회원전

2023 제6회 설악사진작가협회 정기회원전이 10월 30일(월)부터 11월 5일(일)까지 속초아트플랫폼 갯배미술관에서 열렸다. '시간 흐름'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풍경을 계절과 시간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비경, 감성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 13점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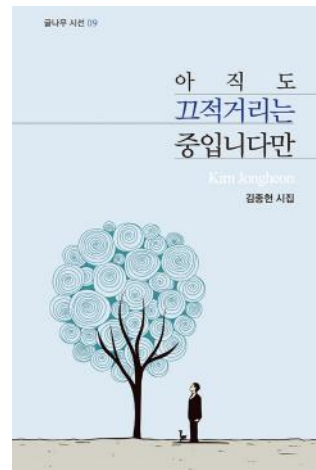
### ● 극단 파.람.불 2023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청소년 연극 혼자가 아니다 3

극단 파.람.불에서는 10월 26일(목)오후 1시 45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생명존중, 자살방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연극 "혼자가 아니다 3"를 공연했다.



### ● 김종헌 시인 두 번째 시집 "아직도 끄적거리는 중입니다만"과 칼럼집 "시(時)와 그림책으로 여는 시(時)·시(市)한 세상이야기 발간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회원인 김종헌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아직도 끄적거리는 중입니다만", 칼럼집 "시(時)와 그림책으로 여는 시(時)·시(市)한 세상이야기" 발간하였다. 일상에서, 풍경에서, 다른 이와 관계에서, 그리고 드러내지 못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는 여정 속 글, 시와 그림책으로 들여다본 세상을 필자만의 생각과 눈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한 칼럼집을 발간하였다.



## 서미숙 시인 수필집

### “그림으로 읽는 수필 - 어쩌다 속초”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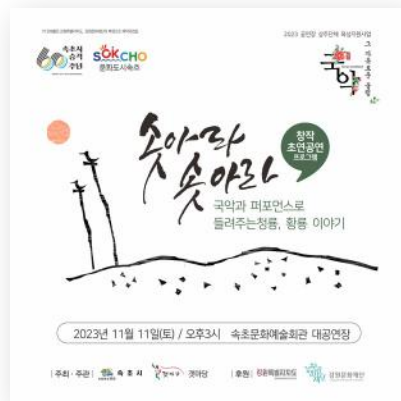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회원인 서미숙 시인이 그림으로 읽는 수필 “어쩌다 속초”를 발간하였다. 어쩌다 보니 속초에 와 살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속초살이를 한지 26년 차...그리움을 담고 이야기를 담고 향기를 담고 바람을 담고 소소한 일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집이다.



## 2023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 그 자유로운 울림.

갯마당에서는 창작초연 공연으로 11월 11일(토) 오후 3시 속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과 퍼포먼스로 들려주는 ‘청룡, 황룡 이야기-숫아라 숫아라’를 공연했다.



## 2023 송년예술제

### - 2023 ‘속초미협 송년미술전 “사랑·나눔 자선미술”

속초미술협회주관 사랑나눔 자선미술전이 12월 9일(토)부터 14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송년예술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미협회원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사랑·나눔 자선 미술전 수익금은 장학금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 권정남 시인 시집 “나사뭇의 기억” 발간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회원인 권정남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나사뭇의 기억” 펴냈다.

시집에는 1부 ‘참 빛’, 2부 ‘마트로시카 그 영원한 모성’, 3부 ‘문득, 천년의 미소가’, 4부 ‘속초엔 속초역이 있다’로 나눠 모두 67편의 시를 담았다.

표제작인 ‘나사뭇의 기억’은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슬픔의 전이를 느끼며 쓴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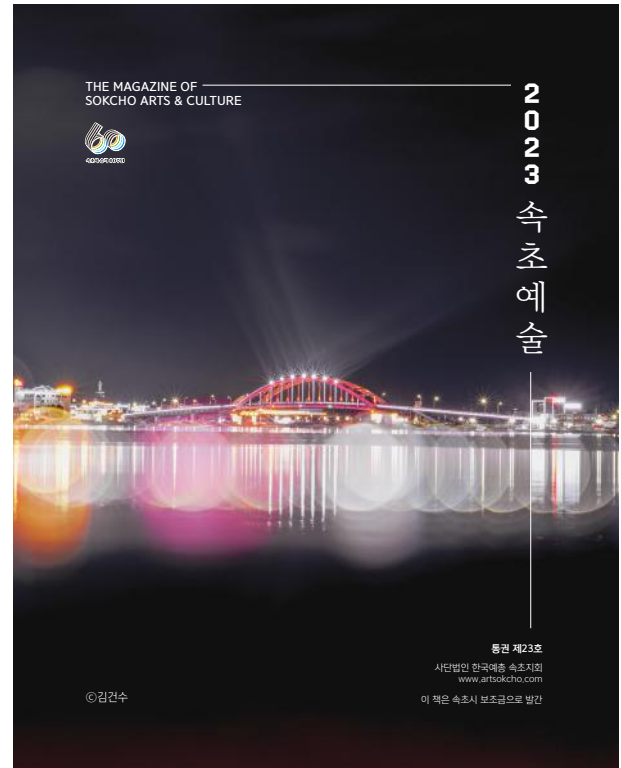
## ● 갈매 53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문학축제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소속 설악문우회 주관 갈매53집 출판 기념회 및 송년문학축제 행사가 12월 2일(토) 오후 3시 속초문화 예술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지역문학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갈매 회원들의 열정으로 써 내려간 '갈매 53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작품 낭독 및 축하마당, 쉬어가는 마당으로 회원 퍼포먼스 시낭송, 독자 시낭송, 독자의 대화를 진행했다.



## ● <속초예술> 23호 발간

속초 예총의 연간지<속초예술>지 23호가 발간됐다. 속초예총 및 8개 협회별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한 해 동안의 창작 및 예술활동 내용이 실렸다.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회**

회장 박치영 수석부회장 박혜정

부회장 서미숙, 김강석, 유영준, 전성호, 장창근, 김문성, 송애숙

명예회장 김영복, 장규호, 정봉재

문인협회 회장 김향숙 미술협회 회장 김만두 연극협회 회장 신오일

음악협회 회장 강명근 국악협회 회장 김동연 사진작가 협회 회장 임흥빈

무용협회 회장 양숙희 연예예술인협회 회장 박재근 영화인협회 회장 윤철형



## <한국예총 속초지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총 속초지회> 행사에 항상 관심을 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예술인단체인 <한국예총 속초지회>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상상력을 일으킴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